

3538  
322.8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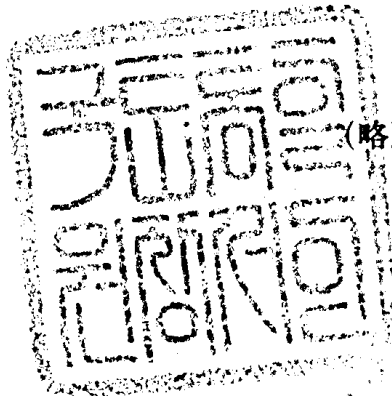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周邊情勢研究

北韓・日本間の 經濟關係와  
北韓社會에 미치는 影響

— The influence of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on the society in North Korea —

研究責任: 沈 晚 燮 (日本名古屋  
中京大學)



(略歷) 1928. 慶南出生

1931. 渡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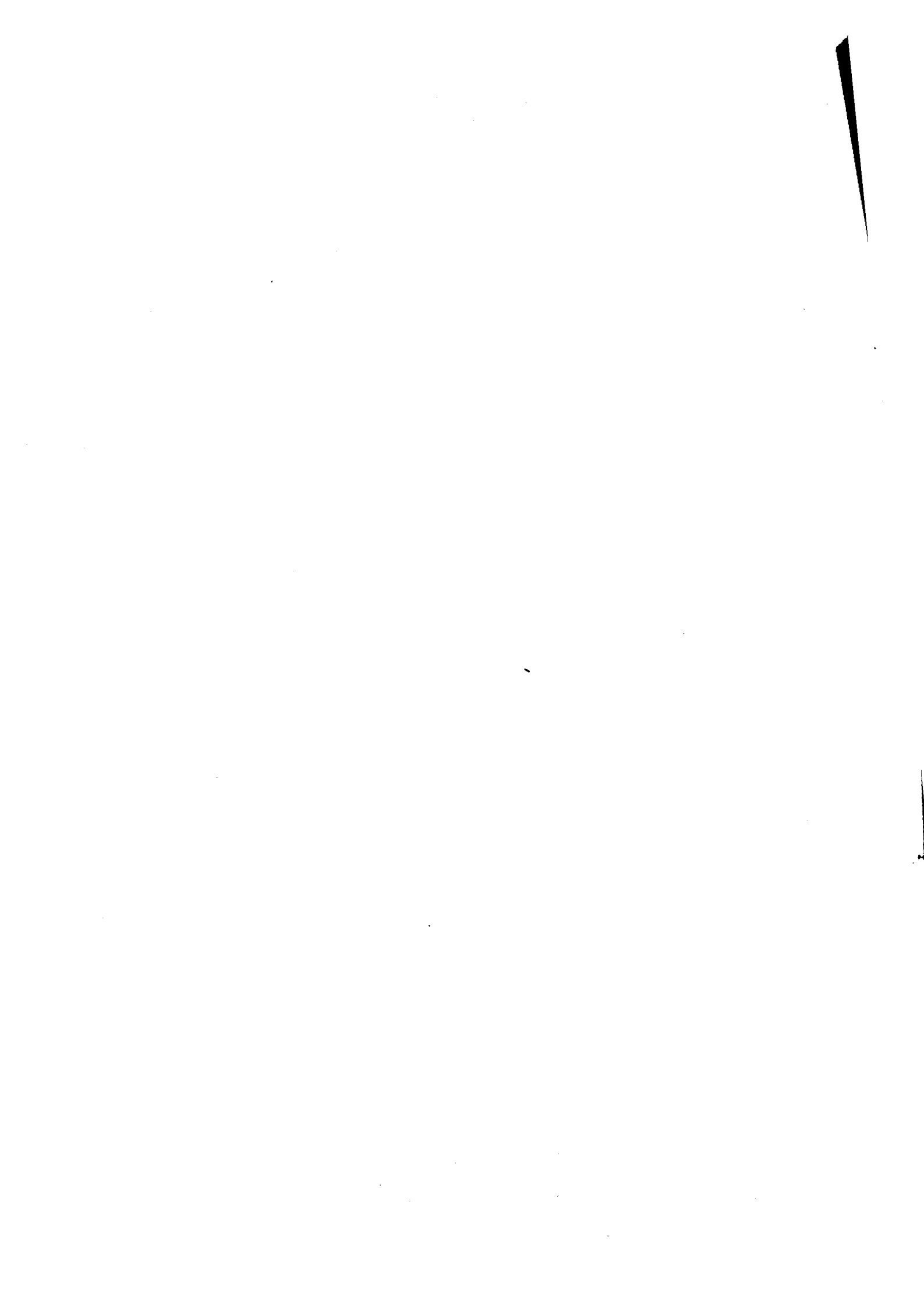
1954. 名古屋大學經濟學部卒

1967. 名古屋大學經濟學博士

現 中京大學院 教授

刊行責任: 朴 聖 勳 (政策企劃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 北韓・日本間の 經濟關係와 北韓社会에 미치는 影響

### ( 要 約 文 )

1971년에 開始된 6個年計劃은 公式적으로는 75年 8月末부터 1年 4個月 早期達成되었다고 하면서도, 北韓經濟는 深刻한 外貨不足에 빠져, 債務의 支拂延期를 西方側諸國에 要請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리 하여 1976~77年の 2年間に 걸친 調整期를 두는 事態가 일어나고 또 78년부터 始作된 第2次 7個年計劃도 74年 當初에 構想되었던 規模에서 縮小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70年代에 들어와서 始作하게 된 東北아시아의 國際情勢는 日・中 平和協定の 締結, 美・中國交正常化에 의해서 새로운 局面을 맞이하게 되어 韓 半島의 情勢에도 커다란 衝擊을 주고 있다. 78년부터 第2次 5個年 計劃을 스타트 시킨 北韓은 中・소 對立의 固定, 日・中, 美・中の 接近 속에서 經濟的인 諸困難을 안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의 座標軸을 再設定 하는데 苦心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東北아시아에 있어서의 美・日・中 三國에 의한 初步的인 安保體制의 成立에 의해서 韓半島에도 무엇인가 새 運命이 열리려 하고 있는 狀況下에서 北韓은 中・소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路線을 持續하면서 美日兩國에의 接近을 피하는 反面, 對韓強硬姿勢는 維持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北韓의 對外貿易政策은 60年代까지는 社會主義市場이 가장 重要視되고 다음으로 新興獨立國이며 資本主義國과의 貿易은 거의 重視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經濟建設의 不振을 打開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産業部門이 차례로 생겨나는 事態에 對應하기 위해서 70年代에 들어

와서 資本主義市場에도 積極적으로 進出한다는 커다란 政策轉換이 이루어졌다.

61년부터 開始된 北韓・日本間의 貿易은 70年代에 들어와서 韓半島를 둘러싼 國際情勢의 變化와 北韓의 市場政策轉換에 의해서 急速히 擴大하게 되었다. 그러나 北韓의 6個年計劃의 挫折, 外貨事情의 惡化에 의한 貿易代金の 未支拂등에 의해서 貿易은 74年을 피크로 하여, 그후는 調整期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今年8월에 貿易代金の 未拂問題解決의 合意가 成立했기 때문에 兩者間의 經濟交流는 新局面을 맞이하게 되어 많은 課題를 안고 있으면서도 貿易額도 서서히 擴大해가는 樣相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直接的으로는 兩者間의 貿易이라 할 수는 없지만 北韓이 輸出에 注力하고 있는 시멘트, 鋼材, 非鐵金屬등에 대해서 日本以外の 第3國에 輸出을 擴大하기 위하여 全世界에 強力한 販賣網을 가지고 있는 日本의 大型綜合商社의 協力을 要請한다는 케이스도 생긴 것이다.

이와같이 兩者間의 經濟關係의 擴大는 北韓社會에 커다란 影響을 주게 될 것이다. 經濟交流의 擴大에 따라서 當然히 人事의 交流, 情報의 相互交換등도 增大해 갈 것이다.

어떤 意味에서는 世界에서도 가장 自由롭게 行動하는 ( 주로 經濟活動의 面에서 ) 日本과의 人事・情報의 相互交流는 世界에서도 가장 閉鎖的인 社會를 形成하고 있는 北韓에 커다란 影響을 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當面하고 있는 經濟的 困難에서 脫皮하기 위해서는 西方側諸國( 특히 日本 ) 과의 經濟交流의 擴大가 不可缺의 條件이 되어

버린 北韓經濟에 있어서 自由主義圈과의 經濟・人事・情報等の 相互交流는 한편으로는 北韓經濟에 대해서 플러스로서 作用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戰後 30年間に 걸친 國民總動員體制의 確立이라는 壓制에 의해서 經濟建設을 遂行해 온 極度로 閉鎖的인 北韓社會를 否定하는 作用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矛盾에 어떻게 對應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今後의 北韓動向을 展望하는 決定的인 要因이 되어 갈 것이다.

한편 70年代에 들어와서의 東北아시아의 國際情勢의 變化와 北韓과 日本과의 經濟交流의 擴大라는 與件의 變化는 南北韓의 關係를 지금까지의 「韓國・美國・日本」과 「北韓・소聯・中國」이라는 對決 圖式으로부터 韓國과 北韓과의 對決이라는 當事者의 問題로 縮小된 形勢가 되었다. 이와같은 條件下에서는 兩者의 關係를 規制하는 것으로서는 人口數와 經濟力의 크기가 決定的인 役割을 하게 된다. 倍以上의 人口數를 가졌고 經濟力에서 懸隔한 差의 優位를 가진 韓國에게는 韓國이 取할 수 있는 行動의 選擇의 幅이 今後 더욱 더 擴大되어 갈 것이다.



# 目 次

第一章 序	5
第二章 北韓의 經濟構造의 推移	11
第一節 北韓經濟의 發展段階의 區分	13
第二節 戰後復興期の 北韓經濟	15
第三節 第1次 7個年計劃의 挫折과 轉換	16
가. 7個年計劃의 挫折	16
나. 3年延長期の 性格과 隘路	18
第四節 6個年計劃과 全面的인 調整	23
가. 6個年計劃의 概要와 性格	23
나. 6個年計劃의 遂行過程	26
다. 6個年計劃의 早期達成	28
라. 深刻한 調整期	30
第五節 第2次 7個年計劃의 概要와 展望	34
가. 第2次 7個年計劃의 概要	34
나. 今後의 北韓經濟의 展望	41
第三章 北韓·日本間의 經濟交流	43
第一節 經濟交流의 歷史的 經過	45
가. 貿易形態의 推移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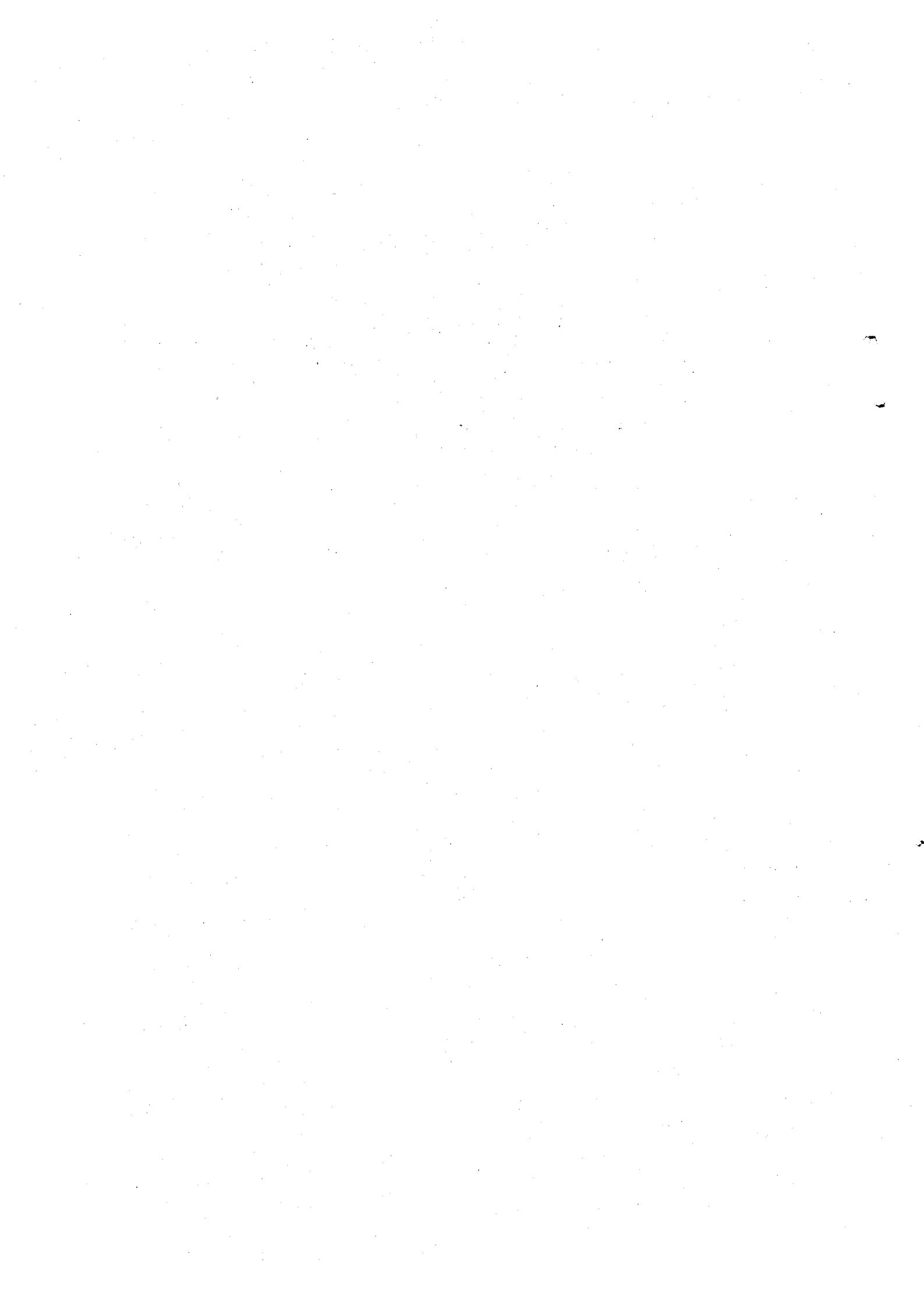
나. 貿易發展의 過程	47
1) 搖籃期부터 基礎確立期	48
2) 貿易關係者의 渡日과 輸銀融資	51
3) 促進氣運에서 停滯무드로	54
4) 最近의 動向	56
第二節 貿易去來의 實績	65
가. 去來金額의 推移	65
나. 商品別의 輸出入 動向	67
第三節 北韓의 對外貿易	69
가. 對外貿易의 概要	70
1) 西方側諸國과의 貿易	70
2) 低開發國과의 經濟交流	71
3) 國別로 본 貿易의 推移	72
나. 貿易代金支拂遲延問題	73
1) 遲延의 原因	73
2) 歐州諸國에 對한 支拂狀況	74
3) 北歐外交官事件	76
第四節 對日債務의 不履行問題	77
가. 債權延長의 經緯	77
나. 1979年 8月의 合意	79
第四章 經濟交流의 展望과 그 影響	84



第一節 經濟交流의 展望.....	83
가. 經濟外的 與件 .....	83
나. 經濟的 與件.....	85
第二節 經濟關係擴大의 影響.....	88
가. 北韓社會에 주는 影響.....	88
나. 南北韓關係에 주는 影響.....	92
第五章 結論.....	97



# 第一章 序



## 第一章 序

1970年代에 들어와서 南北韓을 에워싼 東北아시아의 情勢는 急激한 變化를 가져오고 있다. 71年 7月の 닉슨 美大統領의 訪中發表, 8月の 南北韓對話의 始動, 10月の 中國의 UN代表權 獲得, 72年 7月 4日의 7.4 共同聲明의 發表, 9月の 日·中國交正常化, 73年이후의 北韓關係의 再冷却化等等 이러한 一連의 激變은 南北韓 各자의 立場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南北韓關係 그 자체의 存在方式에도 커다란 影響을 미칠 수 밖에 없었다.

60年代의 閉鎖的인 市場政策에 의한 經濟建設의 破綻에서, 西方側諸國과의 經濟交流를 經濟再建의 지렛대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던 바로 그 무렵의 이러한 東北아시아 情勢의 激變은 政治的으로는 「自立路線」을, 經濟的으로는 「自力更生」을 표방하는 孤立的인 一國의 社會主義建設의 길을 내딛고 있던 北韓에 그 進路의 大幅的인 修正을 재촉하게 되었다. 그 結果는, 對外的으로는 西方側諸國 특히 地政的, 歷史的으로 關係가 깊은 日本에 대한 接近을 試圖·擴大하려고 하였으며, 對內的으로는 이러한 開放政策과는 전혀 반대로 金日成 個人崇拜의 神格化에의 格上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極端的인 國民總動員體制의 確立이라는 緊張政策을 強行한다고 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이미 經濟大國으로서의 地位를 튼튼히 하고 다시 日·中國交正常化를 이룩한 日本으로서의 韓半島의 平和維持가 日本 스스로의 安全保障에 점차 不可分의 條件으로 되게끔 되었다. 따라서 日本에 있어서는

단지 日本商品の 輸出市場, 非鐵金屬 등의 原資材의 供給源으로서의 北韓과 의 經濟的 交流에 의한 物資의 相互融通이라는 메리트에서만이 아니라, 北韓이 東北아시아 社會에서 孤立한 채로 있는 境遇에 殃及되는 北韓의 無謀한 行動을 抑制한다고 하는 安全保障의 面에서도 北韓과의 經濟·人事·文化의 交流를 擴大하려는 氣運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같이 東北아시아 情勢의 激變속에서 北韓과 日本의 經濟交流關係도 새로운 局面을 맞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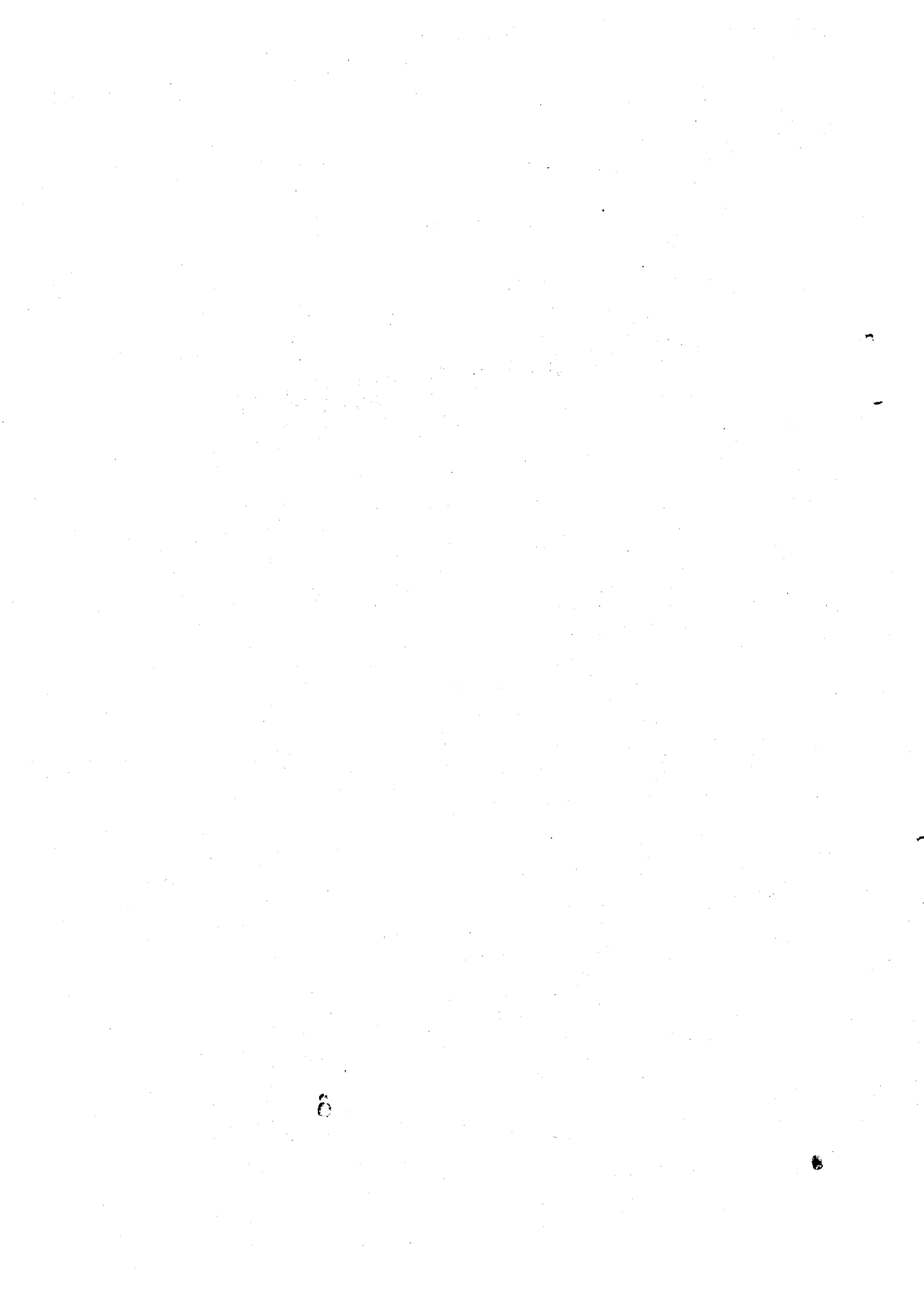
그러므로 本論文은 새로운 局面에 들어간 北韓·日本間의 經濟關係의 擴大가 北韓의 經濟나 社會에 어떠한 影響을 주는 것이며 또 그것이 南北韓의 關係 그 자체에 어떻게 影響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밝히고자 執筆한 것이다.

따라서 本論文에서는 먼저 解放 이후의 北韓經濟의 構造變化의 推移를 考察하는 가운데 西方側諸國과의 交流를 強化하지 않을 수 없다면 北韓의 經濟的 必要性이 왜 생겼던가, 또 그 過程에 있어서 왜 金日成의 神格化에 까지 이르는 國內體制의 緊張을 強化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라고 하는 北韓經濟가 가진 構造的인 問題點을 明白히 하는 同時에 78年부터 始作된 第2次7個年計劃의 概要와 今後의 北韓經濟의 課題를 다루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北韓과 日本과의 經濟交流(그것은 主로 貿易面의 交流이지만)의 歷史的 經過의 概要를 보면서 兩者間의 經濟交流의 實績, 兩者間에 생기는 懸案事項, 北韓의 對外貿易에 占하는 日本의 位置 등이 考察될 것이다.

끝으로 北韓・日本間의 經濟交流의 展望과 課題 및 그것이 北韓의 經濟建設에 있어서 어떠한 意味를 가지며 北韓의 經濟構造에 어떠한 影響을 줄 것인가를 論하고 아울러 南北韓의 關係에 대한 影響에 대해서도 그 展望을 皮력하게 될 것이다.

以上과 같은 目的을 가진 本論文이긴 하지만, 論文作成에 있어서 먼저 日本에 있어서 筆者가 人手할 수 있는 北韓經濟에 關한 資料는 매우 한정되고 있으며, 또 北韓의 公表數値가 多分히 作為的인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일단은 그것을 基礎로 한 分析을 進行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事實에서 所謂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지 않았던가 하고 염려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批判과 叱正을 바라마지 않는다.





## 第二章 北韓經濟構造의 推移

### 第一節 北韓經濟의 發展段階区分

1945年 8月 10日 蘇聯의 雄基에의 進擊 및 8月 26日의 平壤進駐에서 3年 4個月間 北韓을 占領하고 있던 蘇聯은 거기에 存立可能한 共產主義體制를 導入하게 되었다.

當然한 結果로서 1945年에 南北韓의 經濟的 紐帶는 끊어지게 되고, 南北韓은 각각 다른 方向으로의 經濟建設에 착수하게 되었다. 다시 1950年의 韓國動亂의 勃發은 단지 多數의 人命의 損傷을 가져온 民族의 悲劇이었을뿐 아니라, 工業生産施設 等の 近代의 産業施設을 破壞하고 말았으며 南北韓 多같이 經濟的인 大試鍊에 逢着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解放에서 現在에 이르기까지의 北韓의 經濟發展段階는, 韓國動亂의 休戰이 成立한 53年 7月을 境界로 하여 그 前과 後로 区分하는 것이 좋으며 대개 다음과 같이 区分할 수가 있다.<sup>①</sup>

第一段階 (1945 ~ 50年, 50 ~ 53年) 第1段階 前半의 1945 ~ 50年은 社會主義體制的 整備期間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써, 1946年 3月의 農地改革法의 採択, 46年 8月의 工業企業, 鑛山, 發電所 等の 無償沒收에 의한 國有化의 斷行, 49年 12月의 國營農業規則의 採択 등이 施行되었다. 그리고 1948年 9月 9日의 「建國」宣言以後, 49 ~ 50年의 2個年計劃의 主要政策目標는, ① 工業部門에 있어서는 國營産業部門의 總産出高를 1948年의 2倍로 增加하고, ② 農地를 擴大하여 農業構造를 改善하고 農業의 機械化를 推進하며, ③ 南北韓 統一後에는 疲弊해진 南韓

經濟를 短期間에 復興시키기 爲한 諸條件을 準備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第1段階 後期の 50 ~ 53 年の 3 個年은 戰爭遂行 期間으로서 이 期間의 特色은 戰爭遂行能力을 極大化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隘路가 發生하였으며, 또 戰亂에 의하여 工業生産施設이나 水利施設, 鐵道, 自動車通路 등의 社會間接資本의 徹底한 破壞에 의하여 마이너스의 成長을 經驗했던 時期이다. 53年 7月의 休戰以後는 다음과 같이 区分할 수 있다.

第2段階 (1954 ~ 60年) 戰後의 復舊와 5 個年計劃의 實施에 의하여 社會主義經濟의 基礎建設에 重點을 둔 期間이다.

第3段階 (1961 ~ 70年) 第1次 7 個年計劃에 依하여 社會主義經濟의 工業的 基礎建設의 期間에 重點을 두게 된 것이나, 7 個年計劃의 挫折과 轉換으로 特徵지워지는 期間이다.

第4段階 (1971 ~ 77年) 6 個年計劃의 遂行에 依하여 社會主義工業의 擴張段階를 目標로 한 期間이기는 했으나 脆弱한 經濟基盤을 露呈하고 말았으며 全面的인 調整을 必要로 한 期間이기도 하다.

第5段階 (1978年 ~ ) 1978年은 東北아시아 情勢의 激變속에서 對內外的으로 많은 試鍊을 안고 스스로의 座標軸의 再設定에 苦心하면서, 第2次 7 個年計劃에 의하여 經濟近代化에로의 苦된 出發을 始作했던 해로서 把握할 수가 있다.

## 第二節 戰後復興期の 北韓經濟

1953年7月の 休戰後, 1954年度를 初年度로 하는 「戰後人民經濟發展復舊 3個年計劃」을 實施, ① 工業施設의 合理的인 配置 및 軍事分界線으로부터 떨어진 場所에 로의 立地, ② 重工業의 優先的인 發展, ③ 輸送部門의 回復, ④ 農業部門의 社會主義化를 促進하기 爲한 協同組合化의 推進이 企圖되었다.

이어서 1957年을 初年度로 하는 5個年計劃이 策定되고, ① 衣食住의 根本的 解決, ② 植民地的인 經濟構造의 跛行性的 解決, ③ 現代的인 技術裝備의 導入, ④ 工業化의 土臺인 重化學工業을 優先的으로 發展시켜 國營 및 協同團體의 工業生産額을 2.6倍以上으로 높이며, ⑤ 勞動生産性을 提高시킨다고 하는 目標가 實施된 것이다. 이 5個年計劃은 그 以前의 3個年計劃의 時期에 比해, 中·蘇를 비롯하여 社會主義國으로부터의 援助가 大幅的으로 減少하고, 또 北韓內에 스탈린 批判이나, 中·蘇對立의 影響을 받은 反金日成派의 有形 無形의 反抗이 계속한다고 하는 困難한 狀況속에서 約 3年으로 目標가 超過達成되고, 1960年 1個年을 次期計劃을 準備하는 「緩衝期」로서 設定한다고 하는 驚異的인 成功을 거둔 것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sup>②</sup> 事實, 現時點에서 돌이켜 보건대 이 計劃까지가 가장 順調롭게 北韓의 經濟建設이 이루어진 時期였던 것 같다 (以上 第2段階).

### 第三節 第1次 7個年計劃의 挫折과 轉換

上述의 5個年計劃의 成果를 基盤으로 하여 前述한 第3段階인 1961年을 初年度로 하는 「國民經濟發展 7個年計劃」이 開始되었다.

#### 가. 7個年計劃의 挫折

7個年計劃이라고 하는 長期計劃은 다시 처음의 3年間을 「前半期」, 그 뒤의 4年間을 「後半期」의 두개의 期間으로 나누어져 있다. 前半期에는 ① 이미 成立된 重工業의 基地를 보다 잘 整備하고 ② 輕工業과 農業을 急速히 發展시켜 人民生活을 劃期的으로 改善하는 데 集中하고, 後半期에는 ③ 重工業基地를 一層 擴張하여 그 技術的 裝備를 改善하고 社會主義의 物質的 技術的 土臺를 強化시키는 데 重點을 두며 ④ 人民生活의 보다 一層의 向上을 期하려고 한 것으로서 이 計劃期間中 (1961 ~ 67年)에 工業總生産額을 約 3.2倍 增大시키고 그 年平均 成長率을 18%로 한다는 計劃이었다.

이렇게 하여 發足한 7個年計劃이긴 했으나, 그것은 當初부터 難航하여 그 成長率은 計劃率에 比하여 언제나 뒤떨어졌으며 그 實績은 第1表에서 보는 바와 같다.

특히 63年の 不振이 두드러져 있으나 이것은 62年 以後 北韓이 中國路線에 追從했기 때문에 蘇聯으로부터의 援助가 中斷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1965年の 實績에서 본다면 1966 ~ 1967年の 兩년에 있어서 는 年率 28%의 高成長을 達成하지 않는 限, 7個年計劃은 達成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66年 10月의 党代表者 會議에 있어서 7個年計劃의 3個年 延長이 決定되기에 이른다.

〈第1表〉 7個年計劃의 實績

(1960年 = 100)

	實績指數	實績成長率	平均計劃目標指數	平均計劃成長率
1960年	100%	-%	100%	-%
1961年	114.3	14.3	118	18
1962年	135.4	18.5	139.2	18
1963年	146.3	8.0	164.3	18
1964年	171.1	17.0	193.9	18
1965年	195.1	14.0	228.8	18

出所 : 「アジア動向年報」 1970年版.

延長의 直接的인 理由로서 金一 副首相(當時)의 報告(表題 「社會主義經濟建設에 있어서의 當面한 課題에 대하여」)가 提示하고 있는 것은 ①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을 併行시켜, 國防을 위한 戰略的 物資의 豫備를 保證하는 必要性뿐이지만 同報告는 同時에 7個年計劃의 途上에서 當面한 困難으로서는 ② 農村에 있어서의 勞動力問題의 解決 및 ③ 社會主義陣營內的 統一과 團結의 弱화를 指摘하고 있다. 따라서 7個年計劃이 挫折한 直接的인 原因은 명백히 ①의 國防費 내지 國防需要의 激增이라는 點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1965年이 韓·日基本條約의 締結이 이루어진 해 였던 것이다. 더우기 ②의 農業生産의 不振에 대해서 보면

計劃 直前の 1960年の 粒穀生産高가 380.3萬톤이었던 것이 61年 483萬톤 62年 500萬톤에 까지 伸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3年은 前年 水準에 그치고 64年은 未發表, 65年은 452.6萬톤으로 減退하고 있다.<sup>③</sup> 이것은 7個年計劃 前半期の 農業重點政策의 失敗를 表面化시켜 政治的인 危機를 불러 일으키는 要因이 되지 않을 수 없는 性質의 것이었을 것이다. ③에 대해서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北韓이 62年頃부터 中國 共産黨 支持를 表明함으로써 소聯으로부터의 援助의 中斷이 있었다는 것과 符合되는 것일 것이다. 더우기 中國은 61~64年間に 1億 5,000萬달러의 借款을 供與하는 協定을 60年 10月에 北韓과 締結하고 있으나, 그 實績은 분명하지 않으며 또 當時 中國이 이른바 「大躍進」後의 後退期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勘案한다면 實行되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도 多分히 의심스러운 바가 있다.<sup>④</sup>

이 時期에 있어서의 重要生産部門의 計劃과 實績을 對比하면 第2表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에서도 명백히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粒穀을 除하고서는 目標을 達成할 수 없었으며 粒穀의 경우도 數字가 不自然하기 때문에 計劃에 맞춘 人爲的인 數字일 것으로 생각된다. 66年의 時點에서는 粒穀生産이 底落했을뿐 아니라 7個年計劃의 目標와는 거리가 먼 狀態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3年 延長期의 性格과 隘路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1966年 段階에서 完全한 挫折에 부딪쳐 大轉換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7個年計劃은 3個年 延長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性格을 띄게 되었다.

〈第2表〉

7 個年計劃 主要部門別實績

部 門 別	單 位	前半期の 計劃目標	1963 年 實 績	7 個年全體 의計劃目標	1966 年 實 績
粒 穀	萬 噸	500	500	660	441.8
電 力	億 kwh	-	117	170	125
石 炭	萬 噸	1,500	1,404	2,500	2,000
鋼 鐵	"	120	115.9	230	130
織 物	萬 km	25	22.7	50	-
水 產 物	萬 噸	83	64	120	-

出所：「アジア動向年報」 1970年版.

第一은 國防力の 強化 및 急進的인 軍事路線이 推進되었다는 것이다. 이 軍事路線은 「軍隊의 幹部化, 軍隊의 現代化, 全人民의 武裝化, 全國土의 要塞化」로써 表現되고 있는 것이나, 67年5月の 党中央委員會에서 對南韓 非軍事路線을 主張했다고 일컬어지는 朴金喆, 李孝淳 等の 이른바 甲山派의 肅清이 이루어졌을뿐 아니라, 다시금 이 時期에 이미 새로이 創設되어 訓練이 進行되고 있던 124部隊에 의하여 다음해 1968年에 있어서의 一連의 南進 武裝계렬라事件이 야기되는 것이다.

第2는 工業에 있어서 「電力工業과 採取工業을 先行시킨다」<sup>⑤</sup>고 하는 方針이 취해졌던 사실에서도 명백한 바와 같이 電力, 石炭을 中心으로 한 에너지 部門이 最大의 隘路로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石油를 갖지 못한 北韓으로서는 大幅的으로 石炭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으나 石炭은 國

民의 光熱消費의 面에서도 끊임없이 需要가 增大되는 同時에 農村의 電化, 鐵道の 電化, 發電의 火力化 等に 의해서도 不斷히 需要가 擴大된다. 그 뒤에 또 相當量의 國防需要가 介入하게 되면 電力과 石炭이 最大의 隘路가 된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또 石油에 關하여 말한다면 比較的 天然資源이 豊富한 北韓이기는 하나, 決定的으로 缺如되고 있는 資源은 纖維原料로서의 棉花, 羊毛, 機械器具 運搬 等の 部品이거나, 日常 消費物資로서 不可缺한 고무原料이며, 또 農業振興을 위한 化學肥料, 農業의 增産, 燃料로서의 石油確保 等等 이것이 모두 石油化學工業과 關連되고 있다는 것을 勘案한다면 北韓經濟에 있어서는 石油化學工業의 役割이 매우 重要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危機를 打開하는 길은 石油를 에너지源 및 化學工業原料로서 補給하는 以外에는 없으나 그 石油의 輸入先은 當時 全적으로 소聯 내지 루마니아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66年 以後 소聯과의 經濟關係를 다시 緊密히 하는 同時에 中國과의 離反傾向을 나타내게 된 重要한 原因의 하나는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第3은 農業生産에 關한 問題이다. 國民의 食生活을 安定, 改善하는 동시에 一定한 戰略備蓄을 實現하고 또한 亞麻, 皮革, 油脂 等 工業原料를 補給하기 위해 1965 ~ 66年의 粒穀生産의 底下에 象徵되는 農業의 不振을 打開하는 것이 緊急事로 되었다. 그러나 農村의 勞動力 不足의 問題가 크게 클로즈·업 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第4는 技術重視政策의 採択이다. 이것은 經濟建設上의 諸困難을 技術水準의 向上에 의하여 克服하려고 하는 方向을 提示하려고 한 것으로 생



각된다.

以上の 네 가지 點을 綜合해 볼 때 北韓은 孤立的인 一國社會主義經濟의 建設을 性急히 實現하려고 하는 過程에 있어서, 에너지 隘路(隘路)를 中心으로 農業隘路, 勞動力隘路 等の 矛盾을 파생시키게 되었으며, 그것이 또 對外的인 緊張의 增大에 의하여 國防力의 強化를 서둘게 됨으로써 急激히 表面化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矛盾을 打開하기 위해 對外的으로는 軍事援助와 石油를 中心으로 하는 經濟援助를 받기 위하여 소聯쪽에 기울어지는 路線에 되돌아 서게 되었으며 對內的으로는 技術的 軍事的 이데올로기의 統制의 一元的 指導下에, 全國民으로 하여금 技術 플러스 集團勞動(이른바 「千里馬」運動)이라고 하는 形態로 勞動效率을 最大限으로 發揮시키는 方法을 계속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을 社會構造的으로 본다면 技術者와 軍人을 엘리트로 하는 피라밋 構造를 整備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데올로기의으로 한 덩어리가 된 黨이, 一元的인 指導와 支配를 해간다고 하는 形態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은 必然的으로 金日成의 個人獨裁라고 하는 形態를 더욱 더 強化시키게 되었던 것이다.<sup>⑥</sup>

3個年 延長後의 7個年計劃의 重要生産部門의 目標値와, 報告된 達成數値는 第3表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에서도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10 指標 가운데 7個年計劃의 目標를 超過한 것은 石炭에 불과하며, 기타는 모두 目標를 下廻했던 것이다. 7個年計劃은 3個年 延長된데도 불구하고 基本的인 指標에 대해서는 目標를 達成할 수 없었으며 豫想하지 않았던 많은 隘路가 登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가운데 主要隘路

로 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sup>⑦</sup>

(1) 若干의 原料의 外國依存 - 例로서 製鐵用的 코오크스炭만을 들고 있으나, 다음에 列挙하는 化學工業用的 石油로 포함되고 있는 것 같다.

(2) 工業原料基地 및 그들의 經濟的 自立性を 強化하기 위한 化學工業 - 특히 石油化學工業基地의 創設과 合成 고무 生産基地의 建設이 急務라고 指摘되고 있다.

(3) 輸送緊張 (北韓에서는 隘路를 緊張이라고 表現하고 있다) - 이것은 매우 切實한 問題로 되어 東西間의 鐵道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鐵道緊張의 主要因이라고 指摘되고 있다.

(4) 勞動力의 緊張 - 具體的인 實態는 提示되어 있지 않으나 全般的으로 勞動力 不足이 深化되고 있는 것으로 推측된다 (以上 第3段階).

<第3表>

延長7個年計劃의 達成數值

項 目	7 個年計劃目標	報告된 達成數字
電 力	170 億 kWh	165 億 kWh
石 炭	2,500 萬 t	2,750 萬 t
鋼 鐵	230 萬 t	220 萬 t
化 學 肥 料	170 萬 t	150 萬 t
시 멘 트	430 萬 t	400 萬 t
化 學 纖 維	7.0 倍	2.4 倍
合 成 樹 脂	68 倍	40 倍
織 物	5 億 m	4 億 m
果 物	3.0 倍	2.0 倍
卵	8 億 個	7 億 個

出所 : 「アジア動向年報」 1971年版.

#### 第四節 6 個年計劃과 全面的인 調整

以上과 같은 隘路를 打開하기 위해, ① 徹底한 原料自給政策, ② 技術革命政策, ③ 生活改善政策이라는 3大重要政策을 基本方針으로 하여 「人民經濟 6 個年計劃」( 1971 ~ 76 年 )이 策定되었다.

##### 가. 6 個年計劃의 概要와 性格

6 個年計劃의 主要目標은 第 4 表에서 보는 바와 같다. ( 괄호는 第 1 次 7 個年計劃의 目標數字<sup>⑧</sup>) 6 個年計劃의 一般的 特色을 한마디로 말하면 7 個年計劃에 比하여 어느정도 낮은 目標額을 내걸고 있으며 다만 量的인 成長政策에서 技術革新을 中心으로 하는 質的인 向上政策으로 크게 政策轉換을 開始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에너지資源의 問題, 化學工業의 問題가 여전히 弱點으로서 계속 남아있는 것같이 보인다.

그런데 1971 年은 上述한 바와 같이 野心的인 經濟建設의 第 1 步를 내딛게 된 해이기는 하나 그 具體的인 進捗狀況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지지 않은 채로 71 年, 72 年에 있어서 韓半島를 에워싼 劇的인 情勢變化가 發生하게 된다.

1971 年의 南北韓赤十字會談에 이어서 72 年 7 月 4 日의 南北共同聲明의 發表는 말할 것도 없고, 韓半島에 깊은 關聯을 가진 國際的인 激動이 연이어 發生했다. 즉, 71 年 7 月의 닉슨美大統領(當時)의 訪中發表, 10 月의 中國의 UN 議席獲得 11 月의 印度·파키스탄戰爭, 72 年에 들어와서부터는 北韓의 日本에 대한 接近政策의 展開, 中國에 대한 再接近의 움직임, 다시 在日朝總聯의 金炳植第一副議長(當時)의 失脚(이것은 後述하는

〈第4表〉

新6個年計劃目標數字(1971~1976)

工業總生產額	2.2 倍	( 3.2 倍 )
生產手段	2.3 倍	( 3.2 倍 )
消費財	2.0 倍	( 3.1 倍 )
年平均成長率	14 %	( 18 % )
重工業部門		
電力	280 億 ~ 300 億 kWh	( 170 億 kWh )
石 炭	5,000 萬 ~ 5,300 萬 t	( 2,500 萬 t )
鋼 鐵	380 萬 ~ 400 萬 t	( 230 萬 t )
化學肥料	280 萬 ~ 300 萬 t	( 170 萬 t )
시멘트	750 萬 ~ 800 萬 t	( 430 萬 t )
化學纖維	1.9 倍	( 9 萬 4,000 t , 7 倍 )
合成樹脂	3 倍	( 6 萬 8,000 t , 68 倍 )
輕工業部門		
織 物	5 億 ~ 6 億 m	( 5 億 m )
農漁業部門		
穀 物	700 萬 ~ 750 萬 t	( 660 萬 t )
米	350 萬 t	( 300 萬 t )
運輸通信部門		
鐵道貨物輸送量	1.7 倍	( 2 倍 )
國民所得	1.8 倍	( 2.7 倍 )

(註) 괄호內는 7 個年計劃目標數字

出所 : 公式發表에 의함.

바와 같이 北韓과 日本과의 貿易에 커다란 影響을 주게 된다.) 등등 가  
별게 넘길 수 없는 事態가 勃發하게 된다.

이러한 事態에 對處하기 爲해 취해진 對策을 大別하면 國內的으로는  
① 72年 4月 15日의 金日成 回甲을 目標로 펼쳐진 6個年計劃의 2年分  
課題를 招過達成하려고 하는 運動, ② 72年 12月의 新憲法의 制定에 의한  
金日成 「國家」主席體制의 確立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은 金日成 崇拜를  
에워싼 이데올로기 活動의 展開이며, 對外的으로는 ③ 外交, 國際活動의 擴  
大와 改善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多難했던 7個年計劃을 3年 延長하여  
겨우 고비를 넘겼다고 하는 時點에서 다시 6個年計劃을 遂行시키기 爲  
해서는 石油, 고무, 纖維 等の 資源面에서도, 諸外國의 產物이나 成果를 導  
입하지 않는 限 6個年計劃 그 自體도 重大한 困難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즉 이제는 單純한 一國的인 規模의 自力更生 方式만으  
로써는 解決할 수 없는 諸條件이 山積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經  
濟建設上의 必要성과 韓半島를 에워싼 國際關係의 激動 때문에 外交, 國  
際關係의 擴大와 改善을 焦眉의 急務로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對外的인 開放政策과는 反對로, 對內的으로는 「美帝國主義」는 北  
韓·中國 兩人民의 敵이라고 하는 말에 象徵되던 美國이, 韓國動亂 以來  
의 盟友인 中國과의 接近을 했다는 事實이 北韓國民에게 준 衛擊, 다  
시금 南北調節委員의 平壤, 서울 雙方 開催에 의한 新聞記者 등도 포함  
한 相互往來에 의하여 韓國經濟發展의 實體를 보게 됨으로써 이에 比較  
되는 北韓經濟의 停滯에 對한 國民의 不滿 發生 등을 억누르기 위해 金  
日成 崇拜運動의 展開에 의한 一層의 抑壓이 必要하게 되었을 것이다.

## 나. 6個年計劃의 遂行過程

72年 4月 15日에 6個年計劃의 2個年分 早期達成의 目標을 이룩하려고 하는, 말하자면 2次 千里馬運動의 高揚을 目標로 한 前年來의 運動은 「10月 10日까지에는 年間計劃을 끝내고 年內에 3個年分 遂行의 目標을 내걸고 革命的 大高揚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고 있다.」<sup>⑨</sup>고 報道된데서도 明白해진 바와 같이 이 運動은 完全한 失敗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이 報道는 4月 15日에 2個年分 達成의 運動이 挫折되고 그 目標을 半年後의 10月 10日(勞動黨創立記念日)까지 延期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事實을 公認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年末까지 불과 80日남짓한 時日에 1個年分을 해치운다고 하는 荒唐無稽한 計算을 하고 있다는 것을 公表하게 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出發부터 不振의 징조를 보이고 있던 6個年計劃의 遂行에 對하여 決定的인 발판을 構築하려고 한 것이 1973年이었다. 金日成의 「新年辭」에서는 ①生産의 第一工程인 採取工業의 發展에 힘을 쏟고 ②建設部門에서는 現代的인 大冶金基地와 綜合的인 大化學工業基地를 建設하는 重大한 課題가 提起되었으며 ③大衆消費物資의 質·量의 向上을 꾀하고 ④輸送組織을 改善하여 輸送需要를 원활히 하며 ⑤綜合的인 機械化와 化學化를 推進하여 農業生産을 決定的으로 높인다고 하는 5大目標을 指示하게 되었던 것이다.

過去 2年間の 經濟活動의 不振을 一挙에 挽回하려고 하여 年頭부터 意欲的인 新工場의 建設, 鑛山과 土地의 開發 등에 着手했던 것이나, 現實的으로는 從來의 優良工場事業所만은 여전히 좋은 成績을 올리고 있긴하

나, 다른 것은 그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不均衡을 克服할 수가 없었으며, 新設, 開發部門도 곧 바로 生産力을 發揮하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9月에는 重點을 다시 從來의 先進部門인 機械 및 既成據點大工場에 두게 됨으로써 이것들이 全體를 끌어 올리게끔 또다시 方向轉換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sup>⑩</sup> 다시 政治思想教育의 強化에 의한 千里馬運動의 새로운 高揚에 커다란 期待를 걸고 있었으나 이것도 期待하는 만큼의 成果를 돌릴 수 없었으므로 後半期에는 企業의 獨社採算制의 導入, 消費産業의 振興 등에 의하여 勞動者의 物質生活의 向上方針을 強化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우기 73年의 經濟動向으로서 하나의 注目할만한 사실은 「7個年計劃」當時, 石油化學工業基地 建設計劃은 소聯에 가까운 阿吾地(成鏡道)에 設定되었으며 6個年計劃에서는 興南에 두어지고 있었으나 73年의 財政報告에서는 그것을 安州地區(平安南道北部)에 建設할 것을 明白히 하고 다시 「西部地區」에 大規模的인 新비닐론工場, 塩化비닐工場을 建設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石油化學工業基地의 立地의 移動은 石油供給 루우트의 重點을 從來의 소聯方面으로부터, 中國·中東方面으로 옮기려고 意圖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期待를 걸고 發足한 73년이긴 했으나 經濟建設은 여전히 低調하여 飛躍的인 成果를 올리지 못하고 있을 때 마침 73年 가을의 石油波動의 衝擊이 이윽고 北韓經濟 全體를 휩쓸게 되었던 것이다. 石油波動의 餘波는 西方側諸國의 不況, 國際商品時勢의 反落 등을 가져와 北韓經濟에 커다란 쇼크를 주게 되었다. 72年 7·4 共同聲明後의 南北韓의

相互往來에 의하여 보아 온 韓國經濟의 發展이 刺戟이 되기도 하여 6  
個年計劃의 當初方針을 變更하여 大的으로 西方側諸國으로부터의 플랜트  
導入을 하기 始作했던 바로 그 때였으므로 北韓이 받은 打擊은 더욱 컸  
던 것이다. 이윽고 北韓經濟는 深刻한 外貨不足에 빠져 債務延期를 西  
方側諸國에 要請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미 周知하는 바와 같다.  
韓國과 같은 輸出産業을 가지지 못한 北韓은 石油를 둘러싼 新情勢에  
體質的으로 재빨리 對應할 수가 없었으며 現在도 아직 石油波動後의 새  
로운 國際價格體系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狀態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거기에다 今年 7月부터의 原油價格의 大幅引上에 의한 第2次石油波動이  
라고도 할 어려운 事態를 맞이하게 되었으므로 그 衝擊은 相當히 長期  
間에 걸쳐서 持續되리라 豫想된다.

#### 다. 6 個年計劃의 早期達成

그러나 아무튼 74년에 들어서자 한편에서는 韓國에 對한 徹底的인  
強硬姿勢를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6 個年計劃의 早期達成을 目  
標로 한 國內의 總動員이 展開되고 이 過程에서 金日成에 對한 個  
人崇拜도 極限的인 神格化에 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그 後繼者를 들  
러싸고 黨·政府間의 微妙한 勢力의 消長을 派生시키게 된다. 75  
年은 6 個年計劃의 1年 早期達成을 目標로 하여 이른바 「3大革命그룹」<sup>⑪</sup>  
이 中心되어 「速度戰」, 「電擊戰」, 「殲滅戰」이라고 하는 戰鬥的인 슬  
로건을 내걸고 異常할 정도로 國民總動員에 全力을 傾注하면서 韓國에 對  
해서는 매서운 對決과 革命化政策을 계속하고, 對外的으로는 金日成을 先  
頭로 하여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大規模的인 對外攻勢를 中國, 東歐諸



國, 非同盟諸國에 對하여 展開하게 된 것이다.

그 結果, 國內的으로는 第5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단 8月末에 6  
個年計劃을 1年4個月 앞당겨 達成했다고 되고 있으며 國際的으로는 第  
30回 UN會議에서 처음으로 南北韓兩決議案이 可決되기 까지에 이룬 成果  
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反面 國內的으로도 새로운 矛盾  
을 露呈시키게 되었으며 後述하는 바와 같은 어려운 試鍊의 時期에 直  
面하게 되었다.

1年4個月 앞당겨서 達成되었다고 하는 第5表의 數値에서 疑問視되는  
것은, 目標을 達成했다고 일컬어지는 電力의 경우에는 目標倍率을 상당히  
下廻하고 있다는 것, 機械工業에서는 全體 및 工作機械에서 目標을 下廻  
하고 있다는 것, 또 鐵鋼部門, 시멘트部門은 目標에 未達하고 있다는 事  
實을 自認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數字에 많은 疑問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1年4個月  
앞당겨 達成한 數字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無理가 強行되었으리  
라는 것은 想像하기 어렵지 않다. 이 無理의 堆積은 計劃을 앞당겨 達  
성한 後, 곧바로 深刻한 影響을 끼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로 75年 中間부터 表面化한 貿易代金 支拂의 遲延現象이다. 이  
때문에 輸入面에서 困難을 받게 되었을뿐 아니라 外債支拂의 遲延現象은  
처음에는 주로 西方側諸國의 經濟界의 憂慮에 그치고 있던 것이, 이윽고  
政治的으로 評判이 좋지 않게 되고 드디어는 社會主義諸國에 있어서의 不  
信感마저 醸成하게끔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一連의 흐름속에서 76年  
8月の 스리랑카에서 開催되었던 非同盟諸國 首腦會談에서의 失敗 및 板

門店 美兵虐殺事件以後에 있어서는 그 國際的 不信感이 表面化되고 北韓 外交는 沈滯化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불과 8個月間에 對前年比 25% 增이라고 하는 激烈한 增産 運動을 展開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드시 6個年計劃에서 約束한 바와 같은 生活水準의 向上을 가져오게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事實, 反對로 말한다면 6個年計劃 達成의 數字가 조작에 의한 誇示的인 것이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今後의 勞動意欲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세째로 突擊型的 增産運動 結果, 建設工場의 遊休化, 建設工事의 遲延 등 全體的인 不均衡과 隘路의 深刻化, 製品 品質의 低下 등이 겹치게 되었다.

네째는 6個年計劃의 早期達成運動의 失敗를 둘러싸고 76年에 들어와서 리이더쉽의 奪取라고 볼 수 있는 激烈한 政治抗爭이 發生했다고 하는 것이다.<sup>⑫</sup>

以上을 綜合하면 北韓의 經濟建設은 6個年計劃의 早期達成이 公表된 直後부터 未曾有의 難關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諸矛盾의 噴出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金日成 個人的 絶對化, 獨裁化, 神格化라고 하는 狀況下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매우 深刻한 樣相을 露呈시키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라. 深刻한 調整期

그리하여 1976 ~ 77年에 걸쳐서 北韓의 經濟建設은 低迷와 危機의 時期를 맞아 深刻한 全面的 調整을 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에 몰리게

<第5表>

6 個年計劃을 앞당겨 遂行한 內容

	指 標 項 目	中央統計局報道		6 個 年 計 劃 目 標	
		目標遂行率(%)	1970年比(倍)	倍 率	實 數
總 體 指 標	工業總生產額		2.2	2.2	
	生產手段生產		2.3	2.3	
	消費財生產		2.1	2.0	
	工業生產年平均增加速度		(18.4%)	(14.0%)	
	國民所得		1.7	1.8	
重 工 業	電力	102	1.7	2.1	280億~300億kWh
	石炭	101	1.8	1.8	5000萬~5300萬t
	鑄鐵粒鐵	92	1.7	} 1.8 (冶金) (工業)	350萬~380萬t
	鋼鐵	86	1.5		380萬~400萬t
	化學肥料	109	2.0	} 2.0 - } 2.5 (化學) 3.0 } (工業)	
	비닐	114	3.6		
	塩化비닐	108	3.3		
	機械製作工業		2.4	2.7	
	大型機械		2.2	-	
	大工作機械	111	2.4	2.8	
	트랙타	101	8.7	-	2萬1000臺
自動車	103	2.4	2.4		
農業機械		3.6	-		
시멘트	91	1.7	1.9 (建材) (工業)	750萬~800萬t	
輕 工 業	織物	116	1.8	-	5億~6億m
	下着類	105	1.5	1.4	
	세탁기	268	5.6	2.1	
	신발	115	2.2	-	7000萬足
	水産物	104	1.5	-	160萬~180萬t
	食料品	102	2.4	-	
	日用品	113	2.0	-	

出所：公式發表에 의함.

된 것이다. 더구나 한편에서는 中國에 있어서의 毛澤東死去 以後의 政變과, 美·日兩國에의 接近, 中·越戰爭 등 北韓을 에워싼 國際環境의 變化도 北韓으로서는 마이너스로 作用하는 傾向을 보이기 始作했던 것이다.

75年 12월에 취해진 이른바 「三大革命赤旗獲得運動」<sup>13)</sup>은 이 難關을 突破하기 위한 새로운 大衆動員을 意圖한 것이었을 것이나, 前述한 바와 같은 國際的인 關係의 不振은 그대로 되돌아와서 國內에도 反映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國內的인 諸矛盾은 그대로 對外關係에 影響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意味에서, 内外의 諸矛盾이 겹쳐서 集中的으로 登場했던 것이며, 따라서 이 難局은 當分間 쉽게 克服될 것 같지 않는 樣相을 들어내고 있다.

金日成은 1977年의 「新年辭」에서 77年을 「緩衝의 해」라고 하고 要旨를 發表했으나 이에 의하면 「緩衝의 해」의 中心課題는 ①輸送의 緊張解消와 採取工業의 先行的 發展 ②經濟各部門에서의 새로운 展望計劃을 위한 準備라고 했다. 輸送과 採取工業以外에 特히 言及하고 있는 部門은 電力, 輕工業, 農業, 水産業이었다.

이와 같이 1977年은 6個年計劃의 早期達成 強行的 政治的, 經濟的 混亂이 계속되는 가운데 76년에 계속되는 事態의 收拾에 커다란 努力을 쏟지 않을 수 없었다. 外交나 經濟의 政策 擔當者로서 實務派를 重用하게 된 것도 韓半島를 에워싼 複雜한 國際環境에 對處하고, 또 6個年計劃 早期達成 強行에 의한 後遺症을 克服하여, 새로운 長期計劃인 第2次 7個年計劃(1978~84年)을 될 수 있는대로 圓滑히 推進하려고 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77年の 經濟에 對해서 말하면 農業은 어느 程度의 豊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工業生産에 있어서는 「今年 1年間 우리나라의 工業은 5個年計劃(1957 ~ 61年)의 5年間に 生産했던 것보다도 많은 工業生産物을 生産하고 있으며 解放前의 1944年の 1年間に 生産한 生産物을 불과 5日間に 生産하고 있습니다.」<sup>⑭</sup>라고밖에 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을 기초로 하여 大體 計算해 보면 1977年の 工業生産은 매우 낮은 水準, 경우에 따라서는 相當한 마이너스의 成果였으리라 推定되는 것이다. 「社會主義愛國炭增産鬭爭」이 展開된 石炭部門 등 一部の 增産은 있을 수 있겠으나 全體로써 봄부터 여름에 걸친 旱魃防止對策에 全國이 動員되었다는 것, 旱魃에 의한 電力難, 또는 外貨不足에 의한 資材輸入難도 있어서 1977年の 工業生産은 1970年代 들어서 最惡의 狀態에 빠져 들었으리라고 생각된다<sup>⑮</sup>(以上 第4段階).

## 第五節 第2次 7個年計劃의 概要와 展望

그리하여 2年間 繼續된 調整作業以後 더구나 工業生産이 70年代 最惡의 狀態에 빠진 가운데 懸案의 第2次 7個年計劃이 確立되게 된다.

### 가. 第2次 7個年計劃의 概要

第2次 7個年計劃은 먼저 基本課題를 「人民經濟의 主體化, 近代化, 科學化를 促進하고 社會主義의 經濟土臺를 다시 強化하여 人民經濟를 더한層 提高시키는 것」으로 規定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特徵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第6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전에 볼 수 없었던 낮은 工業 成長率을 目標로 하고, 既存의 經濟的 土臺의 最大限의 利用을 追求한다고 하는 것이다. 즉 工業生産의 年平均 增加率을 12.1%로 策定하고 있으며 이것은 6個年計劃(1971~76年)의 實績 16.3%는 勿論, 延長

<第6表> 經濟計劃期別의 工業生産增加率

經濟計劃期	工業總生産額 年平均增加率 (%)	基準年度에 대한 倍数(倍)		
		總生産額	生産手段生産	消費財生産
戰後復旧 3個年計劃(1954~56年)實績	41.7	2.8	4.1	2.1
5個年計劃(1957~60年)實績	36.6	3.5	3.6	3.3
7個年計劃(1961~70年) "	12.8	3.3	3.7	2.8
6個年計劃(1971~76年) "	16.3	2.5	2.6	2.4
第2次 7個年計劃(1978~84年)目標	12.1	2.2	2.2	2.1

出所: 公式發表數值에 의함

第1次7個年計劃(1961~70年)의 實績 12.8%마저 下廻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는 計劃의 重點部門으로서 먼저 採取工業에 最優先을 주고 다음으로 輸送部門, 機械工業, 農業(穀物生産)의 重視를 내걸고 있다는 事實이다.

세째로 計劃을 遂行하기 위해 繼續 思想, 技術, 文化의 3大 革命路線의 貫徹 및 自力更生 原則의 堅持가 必要하다고 強調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와같은 特徵은 6個年計劃의 早期達成의 強行過程에서 생긴 여러가지 經濟的 苦境 - 그 最大의 것은 말할 것도 없이 外資不足의 問題 - 을 뚜렷이 反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計劃은 具體的인 生産의 目標로서 第7表와 같이 工業總生産額을 期間中에 2.2倍 끌어 올린다는 것(年平均 12.1%增) 穀物生産을 850萬

<第7表>

第2次7個年計劃의 主要指標

部 門	第2次7個年計劃 (1978~84)目標	6個年計劃(1971~76)實績
工業總生産額	2.2倍	2.5倍
生産手段生産	2.2倍	2.6倍
消費財生産	2.1倍	2.4倍
工業總生産年平均增加率	12.1%	16.3%
[工業]		
電力生産	560~600億 kWh	280億 kWh(1975年)

部 門	第2次7個年計劃 (1978~84)實績	6個年計劃(1971~76)實績
石 炭 生 產	7,000~8,000萬噸	5,000萬噸(1975年8月)
鐵 鑛 石 生 產	1,600萬噸	(目標1.8倍)
非 鐵 金 屬 生 產	100萬噸	...
銑鐵, 粒鐵, 粗鋼生產	640~700萬噸	銑鐵, 粒鐵, 推定322萬噸 (1975年8月)
鐵 鋼 生 產	740~800萬噸	生產能力400萬噸
壓 延 鋼 材 生 產	560~600萬噸	(目標280~300萬噸)
(鋼 管 生 產)	2.6倍	...
(와 이어 로 프 生 產)	4.1倍	...
機 械 加 工 品 生 產	500萬噸	...
工 作 機 械 生 產	5萬臺	3萬臺
트 렉 터 生 產	4萬5,000臺	生產能力3萬臺以上
化 學 肥 料 生 產	1.6倍(500萬噸)	300萬噸(1975年)
農 藥 生 產	2倍	...
(除 草 劑 生 產)	9倍	供給量2.4倍(1977年)
化 學 纖 維 生 產	1.8倍	(目標1.9倍)비탈론 3.8倍 (1975年8月)
合 成 樹 脂 生 產	2倍	(目標3倍)
(塩化비닐 生 產 能 力)	10萬噸	5萬噸
(카 바 이 트 生 產)	1.6倍	...
(硫 酸 生 產)	1.9倍	(目標1.3倍)
(苛性소오다 生 產)	1.8倍	(目標1.8倍)
(炭酸소오다 生 產)	3.4倍	(目標2.7倍)



部 門	第2次7個年計劃 (1978~84)實績	6個年計劃(1971~76)實績
醫 藥 品 生 産	2.1 倍	2.3 倍
醫 療 器 具 生 産	2 倍	7.2 倍
시 멘 트 生 産	1,200~1,300萬噸	生産能力 800 萬噸
織 物 生 産	8 億미터	6 億미터以上
(닛 트 製 品 生 産)	1.7 倍	編織物 세 터, 자키 트生産能力 6 倍 下着類 1.6 倍 靴下類 1.8 倍
國內原料에 의한 砂糖生産	30 萬噸	...
신 발 生 産	1 億足	신발推定 8,050 萬足(1975年 8月)靴類 2.4 倍
紙 生 産	1.8 倍	(目標 1.8 倍)
地 方 工 業 生 産	2.4 倍	(目標 2.6 倍)
水 産 物 生 産	350 萬噸	160 萬噸(1975年 5月)
그 가 운 데 魚 生 産	270 萬噸	(目標 130 萬噸)
冷 凍 魚 類 生 産	1.8 倍	(目標 3.4 倍)
魚 類 缶 詰 生 産	3.1 倍	(缶詰, 瓶詰目標 2.9 倍)
干 物 生 産	1.9 倍	...
塩 辛 類 生 産	2.1 倍	...
[ 農 業 ]		
穀 物 生 産	1,000 萬噸	800 萬噸以上
(段 段 畑 造 成)	15 萬町步	...
干 拓 畑 造 成	10 萬町步	2.0 倍(1975年 6月)
耕地 100 町步當 트럭터	10 臺	平野地帶 6 臺 中間, 山間地帶 5 臺(1977年)

部 門	第 2 次 7 個 年 計 劃 ( 1978 ~ 84 ) 目 標	6 個 年 計 劃 ( 1971 ~ 76 ) 實 績
田畑 1 町步當化學肥料施肥量	2 噸以上	1 噸以上 ( 1975 年 ) 水田 1.3 噸, 畑 1.2 噸 ( 1977 年 )
肉 類 生 產	80 ~ 90 萬 噸	生產能力 55 萬 噸 以上
果 物 生 產	150 萬 噸 以上	2.2 倍
[ 運 輸 通 信 ]		
( 鐵 道 貨 物 輸 送 量 )	1.7 倍	1.7 倍 ( 1975 年 8 月 )
( 自 動 車 貨 物 輸 送 量 )	4 倍	1.8 倍 ( " )
( 船 舶 貨 物 輸 送 量 )	4.4 倍	1.7 倍 ( " )
鐵道貨物輸送總量中, 集中輸送的比重	60 % 以上	...
( 鐵 道 的 新 規 電 化 )	1,600 km	380 km
( 鐵 道 貨 物 輸 送 總 量 中, 電 氣 機 關 車 牽 引 的 比 重 )	87 %	66 %
( 貿 易 貨 物 通 過 能 力 )	2 倍 以 上	2.7 倍
( 重 要 都 市 的 市 內 電 話 交 換 能 力 )	2 倍 以 上	...
[ 基 本 建 設 ]		
基本建設總投資額中, 生產建設的比重	80 % 以上	( 目 標 78 % )
組 立 式 建 設 的 比 重		
產 業 建 設	70 %	...
住 宅 建 設	90 %	...
公 共 建 設	70 %	...
施 設 物 建 設	60 % 以上	...

[ 教 育 , 科 學 , 文 化 ]

部 門	第2次7個年計劃 (1978~84)目標	6個年計劃(1971~76)實績
[人 民 生 活]		
(國 民 所 得)	1.9 倍	1.7 倍(1974年)
(國家豫算의 社會文化的施 策費)	1.4 倍	...
住 宅 建 設	每年 20~30 萬戶	都市 41 萬 4,000 世帶 農村 47 萬 2,000 世帶
小 賣 商 品 流 通 額	1.9 倍	1.8 倍(1974年)
豫 防 治 療 集 團	1.3 倍	2.8 倍(1975年8月)
病 院 벡 트 數	1.2 倍以上	1.4 倍(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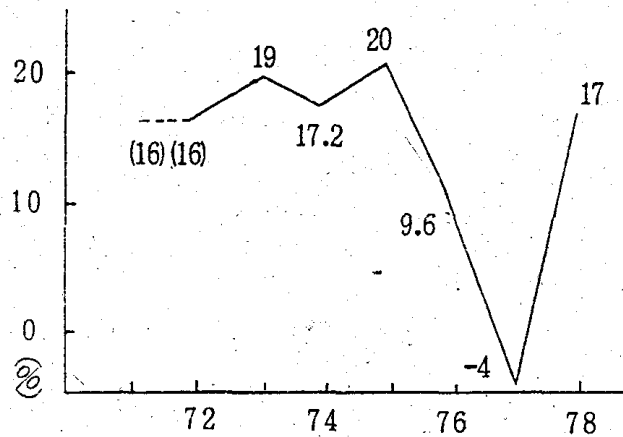
出所：公式發表에 의함.

톤에서 1,000 萬톤으로 增大시킨다는 것 등을 내걸고 있다.

그리하여 1978 年은 新 7 個年計劃의 初年度라고 하는데서 內政全般이 經濟中心의 움직임을 취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年初부터 計劃을 앞 당겨 達成하기 위한 캠페인이 展開되었다. 먼저, 金日成은 78 年 新年辭를 통하여 「1978 年은 第2次 7 個年計劃을 遂行하는 最初の 해이며 우리들은 오늘부터 새로운 戰鬪를 開始하게 됩니다. 新展望計劃을 成功裡에 遂行하느냐 못하느냐는 今年度의 戰鬪를 어떻게 進行시켜가느냐에 크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고 國民에 對하여 奮起를 呼訴했던 것이다. 그리고 6 月에 들자 9 月 9 日의 「建國」 30 周年을 겨냥하여 計劃 達成을 위해 「100 日戰鬪」(6 月~9 月初旬)가 全國적으로 展開되었던 것이다. 그 結果, 1978 年의 經濟는 農業面에서 大旱魃로 穀物生産이 不振했다고 하지만 工業面에서는 工業總生産額이 前年度比 17%로 크게 回復하고 第

2次7個年計劃의 初年度로서는 그런대로의 實績을 거두고 있는 듯 하다. 다만 工業生産額의 前年對比 增加率이 17%라고 하는 것은 이 計劃의 目標值 12.1%를 相當히 上廻하는 것이긴 하나, 既述한 바와 같이 1977年의 工業生産이 마이너스 成長으로 推定되는 등 매우 不振했다는 것과 關聯되는 것이다(第1圖 參照)<sup>⑬</sup>. 事實 公式發表에 의하면 1978年 上半期(6月23日現在)의 前年 同期比 增加率은 21.6%, 「100日戰鬪」期間이

〈第1圖〉 工業總生産額增加率의 推移



( )内는 仮定, 76年, 77年은 小牧輝夫氏의 推定

出所: 「アジア動向年報」 1979年版.

同 23.0%였던 것이, 年間을 通해서는 17.0% 增으로 伸長率이 相當히 떨어져 있는 것은 9月9日까지는 急피치의 增産運動이 奏効하긴 했지만 그 後는 멈추고 말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1979年은 第2次7個年計劃의 第2年度로서 그 課題를 ①採取工業 優先에 의한 燃料, 原料問題의 解決 ② 모든 部門에서의 生産의 正常化 ③ 輕工業의 完全稼動에 의한 人民生活의 向上 ④ 輸送의 緊張緩和를 指摘

하고 「“모든 것을 石炭増産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 党이 내걸고 있는 重要한 슬로건이다」라고 指摘하고 있다.<sup>17)</sup> 그리고 金日成은 79年의 新年辭에서 「本年度의 社會主義經濟建設의 中心課題는 人民經濟의 主體化, 現代化, 科學化를 推進시키는 동시에 모든 쌓아올린 經濟土臺를 有效하게 利用하여 生産을 最大限으로 增大시켜 人民生活을 劃期的으로 向上시키는 데 있습니다」고 말하고 있는 동시에 역시 採取工業에 第一義的인 힘을 들릴 것을 呼訴하고 있는 것이다.

#### 나. 今後의 北韓經濟의 展望

그런데 78년부터 始作된 第2次7個年計劃은 北韓經濟를 에워싼 内外의 困難을 克服하고, 經濟의 自立과 近代化를 同時에 達成하려고 하는 苦心의 結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몇가지 問題點을 안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첫째로 이 計劃에서 強調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 既存設備의 最大限의 利用, 新規投資의 制限이라고 하는 方針은 원래 6個年計劃(71~76年)에서의 當初計劃 그것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西方側諸國으로부터의 플랜트 輸入의 急増에 의한 大規模投資의 方針에 轉換했던 것은 72年의 7·4 共同聲明以後의 南北相互 往來에 의하여 確認된 韓國經濟의 發展에 刺戟되어, 北韓이 韓國과의 經濟競争에 말려들었기 때문이었다. 이 點 韓國과의 經濟的 隔差가 점차 擴大되고 있는 現段階에서 韓國經濟의 發展을 意識하지 않고 北韓이 스스로의 計劃대로 安定成長路線을 堅持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먼저 問題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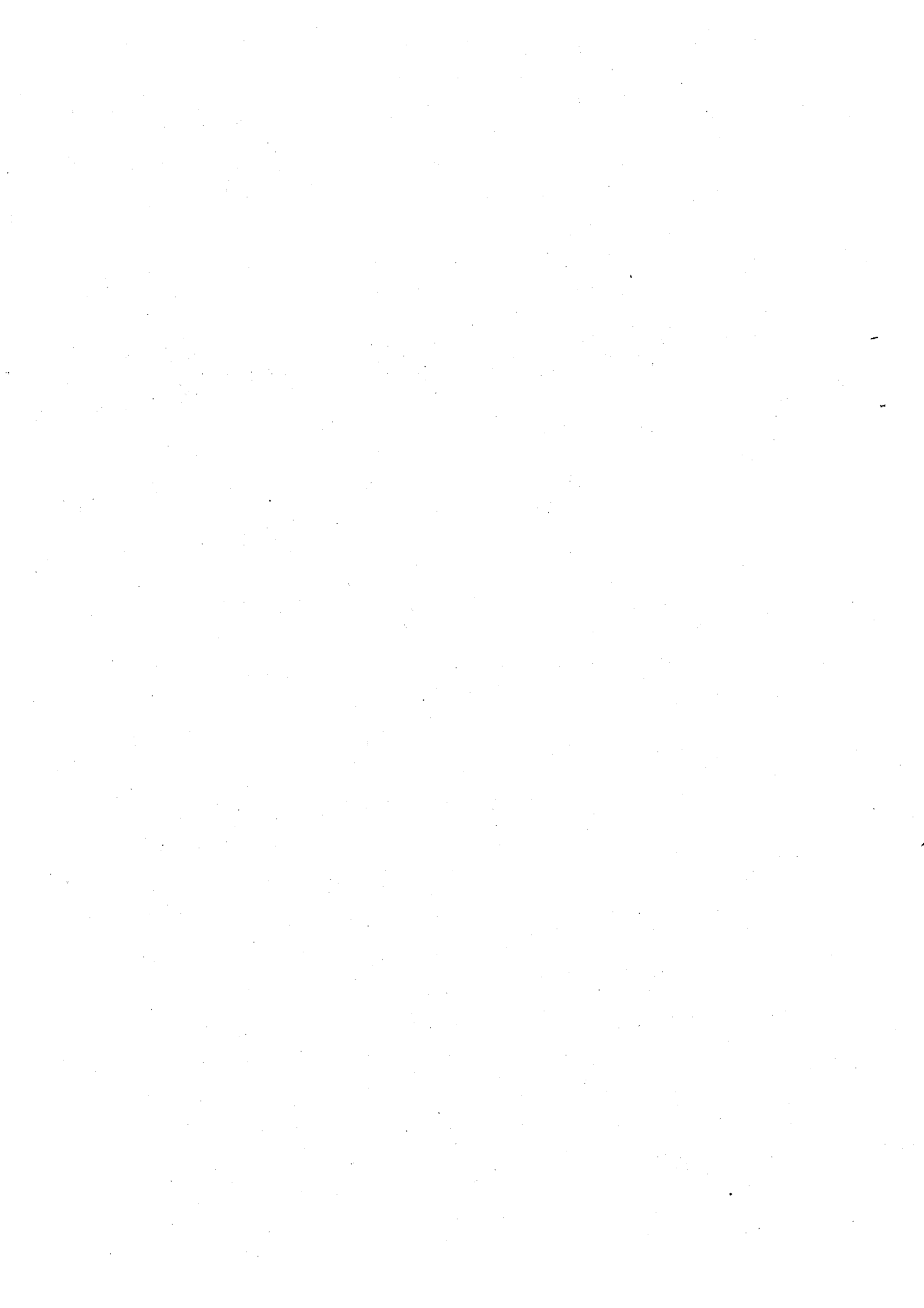
둘째, 이 計劃의 基本課題에 관한 問題이나, 「經濟의 主體化」라고 하

는 것과 「經濟의 近代化, 科學化」와의 關係이다. 이 두가지는 論理的으로는 어떻든, 實際上에 있어서는 均衡을 취한다는 것은 매우 困難한 것이기도 하다. 外資不足에 골치를 앓고 있는 當面한 狀況下에서는 「經濟의 近代化, 科學化」가 自力更生의 原則과 衝突하는 일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반대로 「經濟의 主體化」의 原則을 貫徹시키는 限 「經濟의 近代化, 科學化」의 進展에는 當然 限界가 있다고 豫想되는 것이다.

새째로 燃料, 原料등의 供給不足에 의한 部門間的 不均衡, 輸送問題의 隘路, 人口의 絶對數에서 말하더라도 勞動力 不足의 深刻化, 軍事費負擔의 增大, 등등 北韓經濟가 內包하고 있는 諸問題에 덧붙여 今年 7月の 原油價格의 大幅引上에 의한 石油波動의 影響을 指摘할 수 있을 것이다. 非鐵金屬, 無煙炭, 水産物等 주로 1次産品の 輸出에 依存하여 輸出産業을 갖지 않는 北韓經濟는 體質的으로 石油波動에 의한 新國際價格體系에 對應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今後의 動向에 注目코자 한다.

### 第三章 北韓・日本間の 經濟交流





### 第三章 北韓·日本間の 經濟交流

#### 第一節 經濟交流의 歷史的 經過

北韓과 日本과의 經濟交流는, 第2次大戰後의 兩者가 놓여진 特殊한 關係에서 주로 貿易面과 그에 따른 人士交流에 限定되게 되었으며, 더구나 日本側에서는 民間의 努力에 의하여 推進되어 왔다고 하는 事情도 있어서 貿易推進의 過程에서 여러가지 困難에 부딪쳤으며 그 걸어온 길은 결코 平坦한 것은 아니었다.

#### 가. 貿易形態의 推移

北韓과 日本과의 直接貿易이 開始되었던 것은 1961年 4月 부터의 일이지만 그에 앞서서 第3國 經由의 間接貿易이 始作되었던 것은 1956年 9月부터였다. 以下 그 前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歷史的 經過를 數개의 段階로 區分하여 考察해 보고자 한다.<sup>18)</sup>

第1段階(1956年 9月 ~ 58年 5月) 1953年 7月 韓國動亂의 休戰이 成立하자 當時 日·소의 國交回復에 熱意를 보이고 있던 日本의 鳩山內閣에 55年 2月 北韓의 南日外相(當時)이 「貿易文化交流 및 기타 關係의 樹立·發展을 위한 問題를 具體적으로 討議할 用意가 있다」고 말한 것이 契機가 되어 兩者의 貿易去來에의 氣運이 提高되고, 1956年 3月 日本側에서 日·朝貿易會(日本의 業者團體)가 設立되었다. 그리고 最初의 去來는 中國의 協力에 의하여 1956年 9月 中國經由의 日中貿易의 形態를 취하여 시작되었다. 즉 第一陣으로서 日本의 東邦商事가 北

韓에서 無煙炭 3,000톤을 輸入했으나 原産地를 中國으로해서 大連에서 船積하고, 決濟는 中國銀行經由 信用狀을 開設하는 方法이었다. 물론 日本으로부터 北韓으로의 輸出도 大連港에 荷物을 揚陸하는 方法이었다.

그러나 58年 5月の 「長崎中國國旗事件」(日本 九州의 長崎市에서의 中國國旗의 燒却事件)에 對한 中國의 抗議에 의하여 日中貿易이 中斷되었기 때문에 이 形態에 의한 兩者間의 貿易은 1年 9個月째 만에 中斷되게끔 되었다.

이 동안의 去來額은 1956年 輸出入合計 60萬달러 57年 413萬 5,000달러, 1958年 404萬 8,000달러였다. ⑭

第2段階(1959年 6月~61年 3月) 1958年末 北韓의 朝鮮金剛協同貿易商社에서 日本으로 直接貿易 내지 第3國 經由去來가 提案되어 1959年 6月부터 再開되었던 것이 香港經由의 去來였다. 이것은 香港의 商社와의 契約形態를 취하여 輸出入 다같이 香港을 經由하여 貨物을 輸出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즉 日本으로부터의 輸出은 香港先으로 하여 輸出手續을 하고 香港에서 香港이 發行하는 船荷證券으로 바꾸었으며, 한편 北韓으로부터의 輸出(日本の 輸入)貨物은 香港發行의 船荷證券으로 바꾸어, 香港으로부터의 輸入으로서 去來가 行하여졌다. 따라서 代金決濟도 香港의 商社를 스위처(Switcher)로서 起用하고 香港에 있어서 輸出入 代金を 決濟하는 方法이었다. 그런데 59年 12月부터 在日同胞의 「北送」이 開始되게 되었으며, 그 歸還船이 日本에 就航하게 되었으므로 日本에서 輸出하는 貨物 가운데 日本政府의 事前承諾을 必要로 하지 않는 品目에 대해서 代金決濟先을 北韓으로 하지 않는 限, 直接 輸送이 認定되게끔 되었다. 그러나 日本政府의 承諾을 必要로 하는 輸出貨物이나 北韓으로 부

터의 輸入은 계속 香港經由에 의하여 輸送하고 決濟하는 것은 從前과 같았다.

더우기 이 동안의 貿易去來額은 日本의 對北韓 輸出이 주된 것이었으며 59年은 日本의 輸出 19萬 2,000 달러, 日本의 輸入 1萬 6,000 달러 60年은 日本의 輸出 113萬 8,000 달러, 輸入 8,000 달러였다.<sup>20)</sup>

第3段階(1961年 4月~62年 10月) 이와같은 情況下에서 60年 10月, 日本의 어느 商社가 北韓에서 船積한 貨物을 直接 日本에 揚陸하고 또 이어서 61年 3月에는 다른 第二, 第三의 商社가 直接 日本에 揚陸하여 日本政府의 對應을 구하였다. 이러한 民間業界의 要望에 부응하는 形態로 當時 日本의 池田內閣은 北韓과의 直接的인 代金決濟를 禁止하고 또 北韓을 強制바-타地域(그 地域에서 輸入할 때에 그와 同額의 輸出이 있는 것을 條件으로 하는 地域)에 指定하는 것을 條件으로 61年 4月, 北韓과의 直接貿易을 認定하는 措置를 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同年 5月, 日本의 某商社가 100 Kw 中波放送設備의 北韓으로의 輸出契約 때문에 北韓技術者の 日本入國을 申請했었지만 許可되지 않았고 그 이후 貿易關係者 또는 技術者の 日本入國 問題가 貿易擴大를 위한 焦點의 하나로 되어 왔던 것이다. (61年, 以後의 貿易額은 後述할 것임)

第4段階(1962年 11月~現在) 1962年 11月부터 日本政府는 北韓과의 貿易決濟의 禁止를 풀고 그와 同時에 強制바-타地域의 指定도 解除했으므로 兩者의 直接貿易의 基礎的 條件이 비로소 갖추어지게 되었다.

#### 나. 貿易發展의 過程

以上에서 指摘한 바와같이 그 兩者의 貿易은 直接去來, 直接決濟가 可

能케 되었으며 貿易量擴大에로의 새로운 段階를 맞게되는 것이지만 以下 그 發展段階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자.

#### 1) 搖籃期부터 基礎確立期(1961 ~ 71年)

直接貿易이 開始된 61年의 다음해인 62年 11月부터는 日本의 船舶會社가 定期貨物船을 就航시키게 되었으며 다시 1963年 2月 北韓의 國際貿易促進委員會와 既述한 日本의 日·朝貿易會와의 사이에 「商社間의 商品去來에 關한 一般條件」이 締結되었다. 이어서 同年 9月 日本의 三井銀行이 北韓의 貿易銀行과 처음으로 「코루레스」契約을 맺고 翌 64年 6月에는 住友銀行도 같이 「코루레스」契約을 맺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sup>21)</sup> 이와 並行하여 決濟面에서의 輸出延拂 問題도 抬頭되었다. 즉 1964年 2月 北韓으로의 鋼材輸出에 1年の 後拂이 認定되고, 이어서 同年 12月 酸素分離機輸出에 2年の 延拂이 許可되었다. 또 翌 1965年 에는 鋼材 35,000톤과 담프카 100臺에 2年, 鹽化비닐重合裝置에 對해서는 3年の 延拂이 許可되었으나 後者에 대해서는 金利負擔의 關係에서 實際로는 2年の 延拂로 되었다. 그러나 以上과 같은 延拂은 어느 것이나 日本輸出入銀行(輸銀) 融資의 適用을 받지 못하고, 民間市中銀行의 融資로서는 金利負擔등으로 해서 延拂에 限度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日本의 輸銀融資의 適用問題가 兩者의 貿易擴大에 있어서의 焦點으로 되어왔던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의 北韓側의 對日貿易의 窓口는, 朝鮮金剛協同貿易商社 다만 一社뿐이었던 것이 1965년부터 「國營」의 各貿易商社가 直接去來에 나서게 되었으며 對日去來體制가 強化되게끔 되었다. 그리고 同年 5月

日本서는 처음으로 機械展으로서 「平壤日本商品展示會」가 開催되고 다시 去來의 擴大에 對應하여 國際貿易促進委員會와 日朝貿易會가 1963年에 맺은 前述의 「一般條件」은 1965年 8월에 全面的으로 改定되게끔 되었다.

그리고 北韓에서는 第1次 7個年計劃(1961~67年, 途中에서 3年延長 70年 達成)을 위해 日本으로부터 機械設備의 輸入擴大를 圖謀하고, 이에 對應하여 日本의 輸出에서도 機械, 鋼材, 化學製品의 比率이 急增했던 것이며, 64年 65年の 日本輸出의 增加를 뒷받침하는 것에는 前述한 日本의 輸出代金の 延拂이 실시되었다는 것도 결들여 힘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兩者間의 貿易의 動向에 물을 끼얹은 것이 1965年의 韓日基本條約의 締結이었다는 것은 明白한 일이다. 日本의 某商社가 朝鮮設備輸入商社와 아크릴纖維製造플랜트(約 150億 日本円)의 假契約를 맺었지만 調査와 相談을 爲한 北韓技術者의 日本入國은 韓國의 反對에 부딪쳐 沮止되게끔 되었다(66年 8月). 이 때문에 北韓側은 日本으로부터 大型購買에서 손을 떼게 된 것이다(第 8 表 參照)

한편 60年代에 들어와서 中 소對立의 深化, 中國의 大文化革命, 美軍의 베트남 北爆開始등 北韓을 에워싼 國際環境의 變化와 既述과 같은 7個年計劃의 完全한 挫折이 뚜렷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北韓經濟가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을 並行시키기위해 7個年計劃의 3年延長을 66年에 決定하고, 工業化를 促進시킨다고 하는 方向으로의 軌道修正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兩者間의 去來는 1968年부터 71年에 걸쳐서 다시 本格化하기 始作했다. 그리고 日本에서는 工作機械를 中心으로 하는 機械類, 北韓에서는 非鐵金屬類의 輸出이 各各 增加되고 取扱品도 多樣化되어왔다.

< 第 8 表 >

北 韓 · 日 本 의 貿 易 去 來 額

( 單 位 : 1000 美 元 )

年 度	日 本 의 輸 出	北 韓 의 輸 出	合 計
61	4,456	3,460	7,916
62	4,781	4,553	9,334
63	5,347	9,430	14,777
64	11,284	20,231	31,515
65	16,505	14,723	31,228
66	5,016	22,692	27,708
67	6,370	29,606	35,976
68	20,748	34,032	54,780
69	24,159	32,186	56,345
70	23,344	34,414	57,758
71	28,907	30,059	58,966
72	93,443	38,311	131,754
73	100,160	72,318	172,478
74	251,914	108,824	360,738
75	180,630	107,466	288,096
76	96,056	42,157	138,213
77	125,097	48,914	174,011
78	183,347	106,862	290,209

出 所 : 日 本 「 通 商 白 書 」 , 各 年 度 版

그 동안 69年 10月에는 「平壤日本機械 및 矽酸鹽技術展覽會」가 開催 되어 메이커, 商社 등 70社가 工作機械 등 約 200點을 出品하기도 하고 1970年에는 日本의 東京(5月)과 大阪(12月)에서 北韓最初の 商品展覽會 가 開催되기도 했으나 그 去來額은 第8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00萬 달러 前後의 것으로서 그 伸張勢는 보잘것없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 2) 貿易關係者の 渡日과 輸銀融資(1972 ~ 73年)

1972年을 境界로하여 兩者의 貿易急増의 契機가 되었던 것은 ① 72年 1月 日本側의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代表團(團長 久野忠治代議士)과 日朝貿易會가 北韓側의 國際貿易促進委員會와의 사이에서 「貿易促進에 관한 合意書」(以下「合意書」라고 略記한다)가 締結되었다는 것, ② 72年 10월에 貿易關係者の 日本入國이 認定되었다는 것, ③ 73年 10월에 日本 輸出入銀行의 融資가 認定되게끔 되었다는 것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①의 「合意書」의 締結-72年 1月 締結된 「合意書」는 76年末까지의 5年間の 協定으로 年年去來額을 增加시켜 76년에는 輸出入 總額 1億 5,000萬英과운드(4億 2,000萬달러) 내지 2億英과운드(5億 6,000萬달러)까지 올려 貿易關係者の 相互往來나 技術交流를 促進할 것, 高額の 去來에는 8年以上의 延拂을 適用할 것, 그리고 또 商品展覽會의 相互開催, 貿易代表部の 相互設置등을 提唱했던 것이다. 그리고 北韓側은 日本政府의 承諾을 받기 前에 暫定的으로 北韓의 貿易代表部的인 機能을 擔當케 하는 것으로서 株式會社朝·日輸出入公社를 東京에 設置하고, 3月부터 業務를 開始하게 되었다.<sup>②</sup>

72年 1월에 民間協定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積極的인 長期協定이 처음으로 맺어지게 된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背景이 있었다. 즉, 그 前年の 7月, 닉슨美大統領의 訪中發表라고 하는 國際的인 潮流變化 속에서 여름 이후, 分斷後 처음으로 南北韓의 交渉이 赤十字間의 交渉과 並行하여 兩當局者間에 開始되었던 것이다. 그 무렵 北韓側에서는 70年 8月の 朝鮮赤十字會의 在日同胞 「北送」問題 交渉再開申請, 71年 5月の 「北送」

再開의 動向等を 軸으로 하여 對日接觸은 頻繁하게 되고 그 態度도 부드럽게 變化되고 있었다. 거기에 北朝鮮 訪問中, 南北韓의 直接交涉의 開始라는 事態가 展開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氣運속에서 71年 9月 北韓을 訪問한 日本의 朝日新聞 俊藤編輯局長에 對하여 金日成은 積極적인 對日發言을 하고 日本과의 經濟關係, 友好關係의 增進에 대한 北韓側의 意向을 詳細히 報道케 했던 것이다. ㉓

한편 日本側에 있어서는 日本政府가 從來부터 對北韓政策은 對韓國關係를 損傷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經濟, 人士, 文化等の 交流를 쌓아간다고 하는 基本方針을 明白히 하고있을 때에 南北韓의 直接交涉이 開始되었다는 事實은 韓國과의 關係를 損傷치 않고 北韓과의 關係改善을 進行시키기 쉽게 했다. 이러한 움직임속에서 71年 11月 超党派의 國會議員에 의한 日朝友好議員聯盟이 結成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南北韓의 對話開始와 軌道를 하나로 하여 北韓·日本雙方 다 같이 關係改善에 相應하는 氣運이 생겨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政治적인 動向의 進展과 아울러서, 北韓側에 있어서는 1971年에 開始된 6個年計劃 가운데 日本을 비롯하여 西方側諸國에서 進歩된 機械設備, 技術等を 導入해 갈려고 하는 姿勢가 보였으며, 日本側에 있어서도 또한 上述한 바와같은 氣運속에서 北韓의 要請에 積極적으로 對應해 갈려고 하는 意慾이 보이게 된 것이다.

②의 貿易關係者の 日本入國 — 日本에서 北韓으로의 渡航에 대해서는 日本政府가 北韓行旅券을 發給하지 않았기 때문에 關係者는 香港 혹은 소련의 旅券을 取得하여 香港—廣州—北京經由 혹은 나호트카—하바로스스크



—이르크쯔크 또는 모스크바經由로 北韓에 渡航했다. 그러나, 71年 1월에 비로소 北韓行的 正式旅券이 發給되게끔 되었기 때문에 船舶에 의한 直接往來도 可能하게 되었다. 다만 兩者間에 直行的 航空便이 없기 때문에 現實的으로는 中國 혹은 소聯經由로 渡航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지만 1974年 10월부터는 日中航空協定の 發効에 의하여 日本—北京—平壤의 루트로써 渡航이 可能케 되었다.

한편 北韓에서 日本으로의 入國은 63年 以後 몇개의 스포츠大會 參席을 위한 入國은 認定되고는 있었지만 貿易關係者の 入國이 認定된 것은 1972年 10月 國際貿易促進委員會의 金錫鎮副委員長 以下 7名の 入國이 처음이었으며 그후 貿易關係者, 技術者의 渡日이 實現되게 되었다.

③의 輸銀融資—72年 1月の 「合意書」의 締結과 이것을 契機로 하는 兩者의 貿易의 急增 특히 延拂에 의한 日本側의 輸出의 急增은 以上과 같은 背景에 의한 것이었으나 또 日本의 北韓에 對한 延拂條件도 從來의 2~3年에서 5~6年으로 緩和되고 73年 7月에는 總 450億 日本圓의 시멘트製造플랜트에 대하여 8年の 長期延拂이 認可되었다.

그런데 73年 10月 타올製造플랜트의 輸出에 대하여 日本輸出入銀行의 融資가 처음으로 認定되고 이어서 몇개의 案件에 輸銀融資가 適用되게끔 되었다.

이리하여 72년부터 75년에 걸쳐서 日本에서 各種의 纖維플랜트 化學工業플랜트를 비롯하여 온갖 設備類, 機械類, 鋼材, 纖維等이 延拂이나 1年以內的 유전스付의 決濟條件으로 輸出되어 피크時的 74년에는 日本側의 輸出은 2億 5,000萬달러에 達할 정도였다.

以上 ①②③의 움직임과 아울러서 72년부터 74년에 걸쳐서 日本貿易振興會(JETRO) 및 日朝貿易會와 北韓側과의 사이에 商品展覽會 開催에 대한 非公式交渉이 行해지고, 貿易事務所의 相互設置의 問題도 몇개의 레벨로서의 相談이 行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 3) 促進氣運에서 停滯무드로

72年 1月の 「合意書」의 締結以後 貿易面에 있어서는 上述한 바와 같은 高揚과 進展을 보였던 것이나, 그러나 「合意書」 締結時의 背景으로 되어 있었던 南北韓의 對話도, 北韓·日本間의 關係改善의 氣運도 그 後는 順調로이 進行되지 않고 事態는 促進氣運에서 停滯무드로 變하는 것이다. 또 停滯무드로 變하는 하나의 契機로 된 것으로 金炳植朝總聯 第一副議長(當時)의 失脚問題가 있다.

①金炳植失脚問題 — 當時 日本에 있어서는 朝總聯의 金炳植第一副議長을 中心으로 하는 財界工作이 活潑하여, 日本財界의 主流를 占하는 經團聯(日本經營者團體聯盟), 經濟同友會, 日本商工會議所의 首腦級이 對北韓貿易의 振興에로 움직이는 氣勢를 보이기 始作하여 72年 7月에는 北韓側의 朝日友好商社에 對應하는 形態로 日本側의 大商社로서 協亜物産이 設立되어<sup>24)</sup> 72년에 某有力財界人을 團長으로 하는 大型의 經濟使節團의 北韓派遣이 確實視되어 있었다. 이들의 工作의 裏面에는 金炳植과 日本側에서는 矢次一夫國策研究會常任理事가 活潑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一時에는 協亜物産이 大量의 플랜트 商談의 窓口가 되는 氣勢로서 나타났던 것이다(70億 日本円까지 達했다고 말해진다).

그러나, 協亜物産의 設立後 얼마되지 않은 9月에는 朝總聯内部에 있어

서도 金炳植批判이 表面化하여 10月以後 協亞物産도 開店休業의 狀態로 되고 그리고 12月에는 金副議長의 北韓滯在中의 失脚이 確定되어 日本에의 再入國의 期限도 끝났기 때문에 協亞物産은 窮地에 몰리게 되었다.<sup>25)</sup> 當然한 結果로서 經濟使節團의 派遣計劃等은 中斷되게 되었으나 이 金炳植失脚事件은 日本의 財界에 커다란 衝擊을 주게 되었다.

우선 첫째로 在日同胞이며 그렇게도 日本의 財界人과의 裏面工作을 모조리 떠맡았던 朝總聯의 實力者(日本側에서 보면 北韓側의 代表者로 받아들였다)인 金炳植副議長이 南北韓對話의 結果로서의 南北相互 往來에 參加하기 위하여 北韓滯在中에 失脚해 버렸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相談의 根據가 붕괴되었을 뿐아니라 失脚이 共產圈特有的 一種의 「肅清」으로 反映된 것이다.

둘째로, 이 「肅清」되어야 할 오직 한사람의 人物의 詭辯에 속아서 從來부터 있었던 窓口인 日朝貿易會를 無視하고 大메이커等の 出資에 의해서 協亞物産을 設立하고 大型使節團까지 派遣을 決定하고 있었던 것이 當事者의 失脚에 의해서 協亞物産도 開店休業으로 말려들어 갔으므로 日本國內에서는 이들의 企劃에 參與했던 財界人(當時의 日本財界의 主流였던 사람들)의 「無定見性」과 「無先見性」이 嚴肅히 批判당하게 되었다.

②經濟外的背景 — 日本側에서 보면 「合意書」締結時的 背景으로서 南北韓의 對話와 北韓・日本間의 關係改善의 氣運이 있었다는 것은 既述한 바와 같다. 즉 71年 8月의 南北韓赤十字와 兩者當局者間의 接觸은 72年의 7・4 共同聲明이 되어서 나타났으며 또 9月에는 日・中國交正常化 이어서 10月에는 前述한 바와 같은 北韓의 貿易代表團의 日本入國이 實現

된 것등에 의해서 「中國의 다음은 北韓」이라는 약간 들뜬 분위기였기는 하나 그러나 그 나름대로 一般的으로 期待感을 갖게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日本의 田中內閣의 急轉直下라고도 말할 수 있는 日中國交正常化에 의한 日本의 中國에의 急傾斜는 南北韓에 대한 日本의 對應에 對해서도 그나름대로의 反響을 일으킨 것으로 되며, 結果的으로는 日中關係(혹은 日臺關係)와 韓日關係(혹은 北韓·日本關係)와는 本質的으로 다른 構造下에 있다는 認識을 넓게 하는 結果가 되어, 容易하게 「中國의 다음은 北韓」이 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또 7·4 共同聲明以後의 南北韓의 對話도 順調롭게는 進展하지 않고 1年後에는 北韓側의 一方的인 中斷措置에 의해서 對話도 事實上 閉鎖되어 버리는 狀態로 되고, 또 當時의 韓日關係의 處理를 둘러싸고 北韓은 日本에 強한 反撥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렇게 71年 여름以後의 南北韓의 對話 開始와 軌道를 하나로 했던 北韓·日本間의 關係改善促進의 氣運은 停滯무드로 轉換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前述한 바와같은 商品展覽會의 相互開催도 貿易事務所의 相互設置問題도 論議하는 途中에 그치고 進展이 보이지 않게 되어 버렸던 것이다.

또 促進氣運에서 停滯무드로의 轉化過程에 있어서 兩者間의 貿易에서 일어난 골치아픈 事態는, 北韓側의 貿易代金決濟 遲延이 74년부터 생기기 시작하여 75年 봄以後 表面化한 것이다(이項 後述).

#### 4) 最近의 動向

外貨不足과 6個年計劃의 早期 達成의 強行措置에 의한 矛盾이 一

時에 激化하여 國內的인 危機와 外交面의 失點을 겹쳐가면서 深刻한 全面的인 調整을 재촉받은 것이므로 兩者의 貿易은 第8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없었던 落後狀態를 나타내게 되었다. 外貨不足의 解決에 相當한 時間이 必要하다고 생각되는데 今後 當分간은 調整의 期間이 繼續되는 樣相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아 사이 77年의 8月末부터 9月初에 걸쳐서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久野忠治團長)의 代表가 北韓을 訪問했으나 同代表團의 主要한 交涉議題는 하나는 77年 8月부터 北韓이 200海里 經濟水域과 軍事境界線을 設定한 것에 따른 漁業問題이며, 또 하나는 前述의 「合意書」가 76年 12月末로 卅 期限이 마감됨에 따라서, 今後의 貿易에 對하여 어떻게 決定하는가하는 問題이다. 그러나 北韓側의 貿易代金支拂 遲延으로, 日本側의 熱意는 끓어오르지 않고 日本側은 漁業問題에 重點을 두게 되었다.

漁業問題에 關해서는 北韓의 東海水產協同組合聯盟과 日本의 民間團體인 日朝漁業協議會와의 사이에 北韓側의 經濟水域 200海里 가운데 沿岸 50海里(北韓이 設定한 軍事境界線)를 제외한 水域에서의 日本漁船의 操業을 認定한 暫定協定이 77年 9月 5日 締結되었다(北韓이 設定한 西側(黃海) 海域에서는 經濟水域은 中國沿岸과의 사이의 中間線까지이며 여기서는 經濟水域과 軍事境界線이 重複되어 日本漁船의 操業은 不可能). 이 暫定協定을 締結할 當時의 期限은 78年 6月末까지였으나 그 期限前의 交涉에 의해서 더욱 延長되어 現在에 이르고 있다. 또 日本의 水産物의 輸入은 大합, 연어, 송어, 대구의알등을 中心으로 77年 3,940톤, 373萬 2,000 달러, 78年 10,494톤 1,736萬 3,000 달러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貿易問題에 關해서는 日朝議聯代表團의 交渉時에는 이미 76年 12月末 締結된 「債權延長合意書」(後述함)의 履行이 遲延되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貿易協定을 위한 交渉에는 進展이 없었고, 今後에도 交渉을 繼續할 것으로 하고 그때까지는 既述의 72年 1月の 「合意書」를 有効하게 한다는 合意에 그쳤다. 以後 이 問題에 關한 交渉의 進展은 보이지 않고 있다.

78년에 들어서도 兩者間의 關係에 커다란 進展은 보여지지 않고 다만 5月の 日本 社會黨代表團(飛鳥田一雄團長)의 北韓訪問이 實現된 程度이다. 이들의 訪問에서 前述한 바와같이 6월에 期限이 끝나는 漁業 暫定協定은 2年間 延長되었으나, 朝鮮勞動黨과 日本社會黨과의 共同코뮤니케에서는 北韓·日本間의 「國交」正常化問題는 1974年때와는 달리 一切 言及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注目해야 할 것은 78년부터의 第2次 7個年計劃의 出發과 함께 對外貿易發展에 關한 指示가 再開된 것이다. 金日成의 79年 「新年辭」에서는 「對外貿易의 發展은 現存의 生産能力을 有効하게 利用하여 生産을 더욱 增大시켜 自主的民族經濟를 공고히 하여 世界各國과의 友好 協力關係를 發展시키는데 있어서 重要な 意義를 갖습니다」라고 말하고 對外貿易發展을 위하여 「信用 第一의 原則」을 徹底하게 지키도록 指示하였다. 그리하여 「人民經濟의 모든 部門에서 輸出品을 優先적으로 生産하고 그 品質을 높이고 納品期日을 嚴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라고 結論짓고 있다. 이 點에 關해서는 今後의 推移를 展望할 수 밖에 없으나, 그러나 1974年 段階에는 明示되어 있던 「資本主義國과의 貿易」이

79年 「新年辭」에서는 直接 言及되지 않았다는 것은 北韓이 處해져 있는 現在의 狀況을 示唆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79年 7월에 北韓의 外國貿易銀行代表團(方基永團長) 一行이 來日하여 貿易代金未拂 問題를 둘러싸고 日本側 日朝貿易問題協議會(債權者 43社에서 構成, 野村嘉彦團長)와의 사이에 交渉이 있어서 8月 28日 일단의 合意를 보게 되었다(이項 後述).





## 第二節 貿易去來의 実績

兩者間의 直接去來가 開始된 1961年 4月以後 現在에 이르기까지 主要去來 品目別로 본 貿易去來額은 第8表 및 第9表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다.

### 가. 去來金額의 推移

우선 去來金額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推移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指摘할 수 있다.

概括적인 傾向으로서는 ①當初 800萬 달러 程度로서 始作된 貿易去來額은 若干의 增減을 反復하고는 있지만은 漸增되어 왔던 것으로 보아 ②71~72年頃의 北韓의 市場政策의 轉換과 6個年計劃 遂行을 反映하여 71년까지는 大體로 北韓이 出超이었던 것이, 72년부터는 日本이 大幅的인 出超로 되어 있으며, ③그것이 74년에 피-크를 이루고 그 後 外債未拂問題로 보여지는 外貨不足등이 作用하여 低迷를 繼續하고 있던 兩者間의 貿易은 다시 增加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고 하는 것이다.

貿易金額의 推移 特히 日本의 輸出(北韓의 輸入)金額에 대하여 時期別로 조금더 상세히 보면 다음과 같이 特徵지을 수가 있을 것이다.

①61~63年은 搖籃期였다. ②64~65年頃은 日本의 延拂條件의 緩和措置등에 의하여 日本의 輸出이 急增하게 되었다. ③1965年의 韓日基本條約의 締結의 反撓等에서 66~67年은 北韓이 大量購入에서 손을 떼게 된 時期이다. ④68~71년에 걸쳐서는 第1次7個年計劃이 3個年 延長되어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을 並行시키기 위해 日本에서 工作機械를 中心

으로 하는 機械類의 輸入이 本格化하기 始作했다. ⑤ 71년부터의 6個年計劃의 發足, 이 당시 市場政策의 轉換(後述), 「合意書」의 締結, 貿易關係者의 日本入國, 輸銀融資의 摘要, 等を 背景으로 하여, 72年 以後 日本의 輸出은 急増하고 74년에는 2億 5,000 萬 달러까지 달하여 피-크를 이루고, 北韓의 貿易赤字가 大幅으로 增加하게 되었다. ⑥ 75년부터 北韓의 外債遲延問題의 表面化, 6個年計劃強行達成의 後遺症으로 因한 76~77年의 深刻한 調整期間의 設定等에 의하여 75~77년에 大幅的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⑦ 그러나 78년부터의 第2次 7個年計劃의 開始에 의

<第10表>

1979 年의 貿易去來額

(單位:千달러)

年	月	日本의 輸出總額	北韓의 輸出總額
1979	1	17,475	17,086
	2	24,027	16,669
	3	29,372	15,878
	4	28,403	14,373

出所: 『外國貿易概況』, 日本關稅協會, 1979年 1月~4月號.

하여 다시 增加趨勢를 나타내기 始作하여 79年 8月에 貿易代金未拂 問題處理에 대한 合意가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局面을 맞게 되었다. 事實 1979年의 去來額도 着實히 伸張되어 있는 것 같으며, 79年 1~3月期의 日本의 輸出은 7,088 萬달러로 前年 同期比 2.6倍이며,

北韓의 輸出은 4,963萬달러로 2.8倍나 急伸張하고 있다. (第10表 參照)

#### 나. 商品別의 輸出入動向

品目別 輸出入의 動向은 第9表에 나타난대로이나 日本의 輸出이 一貫해서 重化學工業品 및 輕工業品으로서 그 大部分을 占하고 있는데 對하여 北韓의 輸出은 年度에 따라서는 品目的 웨이트가 상당히 變하고는 있으나, 最近에는 非鐵金屬, 絹, 魚介類가 主流를 占하여 石炭의 웨이트가 低下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77年, 78年의 動向을 간단히 紹介하는 데에 그친다.

77年의 日本의 商品別 輸出構成은 重化學工業品이 63.6%를 占하고 다음으로 輕工業品 29.5%, 原燃料 5.2%로 되어 있다. 機械器具中 輸送機械가 前年比 27.6%減, 精密機械가 同 8.3%減이었으나 電氣機械 同 44.3% 增加, 一般 機械가 同 23.1%增加하고 全體로서 同 16.0%의 增加로 되어 있다. 輕工業品에서는 纖維品이 人造纖維, 合成纖維織物, 纖維二次製品 등이 增加되고 있으며, 同 3.9倍의 大幅增加로 되어 있는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化學品에서는 人造프라스틱이 前年比 20.4%의 增加로 되어 있다.

78年의 商品別 웨이트는 重化學工業品 65.4%, 輕工業品 24.5%, 原燃料 2.9%로서 前년에 比해서 重化學工業品이 增加하고 輕工業, 原燃料가 減少하고 있다.

한편 77年의 北韓의 日本에 대한 商品別 輸出의 構成에서 보면 加工製品이 51.4%를 占하고 다음으로 原料品 33.0%, 食料品 12.1%로

되어 있으나, 加工製品 가운데 非鐵金屬이 45.2%를 占하고 있다. 原料品은 絹, 非鐵金屬鑛物, 非金屬鑛物이 主된 것이며, 絹의 急伸張이 눈에 띄고 있다. 食料品은 果實 및 野菜가 前年比 34.8%의 減少, 魚介類가 同 24.4% 減少되어 있으며, 全體로서는 同 21.2%가 減少했다.

78年の 商品別 웨이트는 加工製品 40.7%, 原料品 28.6%, 食料品 27.8%로서 前年에 比하여 加工製品과 原料品이 低下하고 食料品이 魚介類, 果實 및 野菜가 大幅增加했다.

第11表는 79年 1~4月間의 日本에의 品目別 輸出金額이다. 「기타」의 項目에 加工製品도 包含되어 있다(輸入에 대해서는 未發表).

<第11表> 79年 1~4月 北韓의 品目別 輸出

(單位:千달러, ( )內%)

月	總額	食料品	纖維原料	金屬原料	其他 原材料	鑛物性 燃料	化學 製品	機械 器具	其他
1	17,086 (100.0)	7,873 (46.1)	1,656 (9.7)	106 (0.6)	1,034 (6.1)	359 (2.1)	-	-	6,058 (35.5)
2	16,669 (100.0)	7,163 (43.0)	940 (5.6)	5 (-)	1,683 (10.1)	197 (1.2)	-	-	6,681 (40.1)
3	15,878 (100.0)	5,203 (32.8)	1,185 (7.5)	-	2,135 (13.4)	214 (1.3)	-	-	7,140 (45.0)
4	14,373 (100.0)	4,200 (29.2)	446 (3.1)	1,080 (7.5)	1,960 (13.6)	56 (0.4)	-	-	6,627 (46.1)

出所: 『外國貿易概況』, 日本關稅協會, 1979年 1月~4月號.

### 第三節 北韓의 對外貿易

北韓의 對外貿易政策은 自力更生, 平等互惠를 原則으로 하고 있으며 輸出入政策으로서는, 基本的인 것이나, 大量으로 必要한 것은 自力으로 生産하고, 약간 必要한 것이나 自國에서 生産할 수 없는 것은 有無相通이라는 原則에 立脚하여 外國과의 貿易을 通해서 解決한다는 方針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市場政策으로서는 60年代까지는 社會主義國市場이 가장 重要視되고, 다음으로 新興獨立國을 重要視하였으나, 資本主義國과의 貿易은 거의 重要視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第1次 7個年計劃을 3個年 延長하는 事態의 發生, 71年부터의 6個年計劃의 始作, 나아가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71年 부터의 國際的 潮流의 激變과 南北韓의 對話開始등에 刺戟되었기 때문인지 第12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70年代에 들어와서, 아마도 71~72年頃에 커다란 市場政策의 轉換이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인다.

第12表 北韓의 對外貿易 (中國除外)

	貿易總額			共產圈			非共產圈		
	輸入	輸出	収支	輸入	輸出	収支	輸入	輸出	収支
1967	166.1	165.8	△ 0.3	134.6	128.7	△ 5.9	31.5	37.1	5.6
1968	256.8	199.4	△ 57.4	266.4	151.4	△ 55.0	50.4	48.4	△ 2.0
1969	333.6	229.0	△ 104.6	240.9	165.6	△ 75.3	92.7	63.4	△ 29.3
1970	328.2	300.9	△ 27.3	267.6	192.3	△ 75.3	60.6	108.6	48.0
1971	486.3	243.6	△ 242.7	422.0	176.1	△ 245.9	64.3	67.5	3.2
1972	527.2	292.7	△ 234.5	370.3	207.4	△ 162.9	156.9	85.3	△ 71.6
1973	706.0	385.7	△ 320.3	370.5	243.5	△ 127.0	335.5	142.2	△ 193.3
1974	1,123.1	557.2	△ 565.9	336.7	281.1	△ 55.6	786.4	276.1	△ 510.3
1975	916.2	621.8	△ 294.4	355.5	308.4	△ 47.1	560.7	313.4	△ 247.3

出所: 「北朝鮮의 産業과 貿易」, 日本貿易振興會, 1977年4月.

가. 對外貿易의 概要

1) 西方側諸國과의 貿易

71년부터 始作된 6個年計劃은 從來의 소聯을 中心으로 하는 社會主義國과의 貿易보다도 72年의 西方側諸國 특히 日本, 西獨, 프랑스와 的 貿易에 比重을 두었기때문에, 이들 西方側諸國과의 貿易・특히 北韓의 輸入이 增加하여 第12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71년에는 共產圈 貿易이 80% 非共產圈이 20%이던 것이 74年, 75년에는 西方側諸國의 比重이 60%를 넘어 74년에는 西方側諸國만으로서 約 5億달러, 75년에는 約 2億 5,000萬달러의 入超를 記錄하게 되었다. 게다가 73年 가을의 石油波動에 依한 世界的인 不況의 深化는 直接, 間接으로 北韓經濟에 影響을 미쳐 75年 봄 以後 對外貿易에 있어서의 貿易代金決濟의 遲延 및 債務不償還 問題로서 具體化되었다. 그리고 72년부터 77년까지의 西方側諸國에 對한 累積赤字는 約 14億달러 67년부터의 共產圈에 對한 貿易赤字가 約 11億달러 合計 25億달러라는 赤字를 안고 있는 것으로 推定된다. (第12表 및 13表參照).

第13表 市場別貿易額의推移(中國除外)

	輸 出				輸 入				貿 易 収 支			
	1970	1975	1976	1977	1970	1975	1976	1977	1970	1975	1976	1977
共 産 圈	188	298	218	287	298	388	357	334	-110	-90	-139	-47
소 聯	136	209	158	222	253	285	265	246	-118	-76	-107	-24
東 歐	52	89	60	65	45	103	92	88	7	-14	-32	-23
非 共 産 圈	109	333	234	225	61	566	470	360	48	-233	-236	-135
日 本	31	59	65	61	26	199	106	139	5	-140	-41	-78
日本을除外한 先進工業13個國	27	99	71	44	20	270	154	76	7	-171	-83	-32
其 他	51	175	98	120	15	97	210	145	36	78	-112	-25
合 計	297	631	452	512	359	954	827	694	-62	-323	-375	-182

出所: 「アジア動向年報」, 아시아經濟研究所, 1979年版.

78年の西方側諸國과의 貿易에 있어서 特徴的인 것은 北韓의 重要한 外貨獲得이었던 鉛・亜鉛 등의 非鐵金屬의 輸出이 大幅 減少했다는 사실이다. (第9表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런데 런던의 金屬去來所(LME)에서는 亜鉛의 時勢가 77年 12月 噸當 290 파운드에서 78年 12月에는 346 파운드로 또한 鉛도 77年 12月の 噸當 369 파운드로 부터 78年 12月에는 432 파운드로 騰貴했다. 한편 LME에서는 소聯과 東歐諸國이 鉛・亜鉛을 大量으로 買入하였다는 것을 傳하고 있으므로 北韓의 鉛・亜鉛이 大量으로 소聯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생각된다.

## 2) 低開發國과의 經濟交流

債務問題의 解決이 順調롭지 못한 것도 있고 해서 北韓의 西方側諸國 특히 先進國과의 經濟交流는 第13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75年을 피크로 하여 活潑치 못하고 오히려 後退하고 있다. 例컨대 北韓과 貿易關係를 가지는 唯一한 現地機關이었던 프랑스의 OLIVER社는 對北韓貿易의 低調 및 將來의 展望이 밝지 못하므로 68年 以後 平壤에 設置하였던 事務所를 78年 7月에 閉鎖하고 있다. 또한 이태리와는 77年 7月에 貿易促進등에 관한 協力協定이 締結되어 平壤과 로마에, 相互間에 事務所를 開設하게 되어 있었으나, 아직도 開設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태리로부터 78年, 79年에 市場調査를 爲한 使節團이 北韓에 派遣될 豫定이었으나 이 計劃도 實現되지 않고 있다. 이와같이 西方先進諸國과의 交流는 대체로 活潑치 못했으나 低開發國과의 交流는 78年 9月 9日의 「建國」 30周年記念式典에의 招待를 包含해서 元首級의 北韓訪問이 잇따라 이루어져 貿易協定등을 締結하는 등 그 經濟交流는 活潑化되고 있다. (第13表 參照).

78年中에 北韓이 貿易協定을 締結한 나라는 인도(2月), 가이아나(4月) 中央아프리카, 모잠비크, 콩고(以上5月), 알제리아(9月), 아프가니스탄(11月), 泰國(12月)이지만, 이 밖에도 11月에는 말레이시아와 貿易協定締結에 關한 議定書에 調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알제리아와의 協定은 79年~81年에 結成 長期 貿易協定이며 北韓으로부터 工作機械, 시멘트, 無煙炭, 耐火벽돌등을 輸出하고, 알제리아로 부터는 原油, 皮革, 燐灰石, 化學製品을 輸入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泰國과의 協定은 北韓이 約 750萬 달러의 亞鉛, 薄鐵板을 輸出하고 泰國으로부터는 1,065萬 달러의 망강, 黃麻袋등을 輸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27)</sup>

### 3) 國別로 본 貿易의 推移

앞에서 본 바와 같이 70年代에 들어와서 北韓과 西方工業國과의 貿易이 擴大됨으로써 74년에는 非共產圈과의 貿易이 共產圈과의 貿易을 처음으로 넘어서게 되어 國別로 보더라도 소聯을 除外하면 日本, 西獨, 프랑스 등 西方先進工業國이 主要한 貿易相對國으로 되어 왔다.

74年の 主要貿易國의 順位는 ①소聯, ②日本, ③프랑스, ④西獨, ⑤루마니아로 되어 있고, 그후 若干의 變動이 있을지라도 77年, 78年の 段階에 있어서도 日本(2位), 西獨, 프랑스가 上位를 占하고 있다. 그 밖에 東獨,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英國,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태리, 스위스, 덴마크,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홍콩, 인도,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 主要貿易國이지만 最近에는 前述한 바와 같이 低開發國과의 經濟交流가 強化되고 있다.

그런데 中國은 아마 1~2位를 다룰 貿易相對國이라 볼 수 있으나,



그 貿易額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指摘해 두고 싶은 것은 北韓이 中·소 어느쪽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路線을 취해 가고 있다고 말해지는 가운데 78年 5月 華國鋒 中國主席이 北韓을 訪問하였고, 이어서 中國이 石油를 友好價格(4.5 달러/배럴)으로 供給하는 일이 決定되었다는 것과, 한편으로 77年에 소聯이 東歐諸國에 石油價格引上을 通告한 것으로 傳해지고 있으므로 北韓에 對해서도 當然히 價格引上이 이루어진 것으로 推定된다는 것, 이러한 두 가지를 勘案하면 今後의 北韓의 動向을 아는 데 있어서 興未깊은 바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中國 自體가 毛澤東死後의 國內政治의 混亂을 收拾하고 스스로의 經濟建設에 注力하고 있고, 特히 經濟近代化를 爲하여 日本에 對하여 巨額의 借款을 申請하고 있는 것으로 傳해지고 있는 것에서 보더라도 中國의 大規模 經濟援助는 希望이 그다지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sup>28)</sup> 中·소對立의 틈바구니에서 어떠한 對應을 할 것인가가 앞으로 注目거리라 할 수 있다.

#### 나. 貿易代金の 支払遲延問題

北韓에 依한 貿易代金の 決濟遲延의 徵候가 나타나기 始作한 것은 1974年 5月頃부터라고 말해지고 75年 봄부터 그것이 表面化되었다. 이리하여 北韓의 外貨事情이 極度로 惡化했기 때문에 76年에 들어와서는 支払의 延期를 要請하기에 이르렀다.

##### 1) 遲延의 原因

輸入代金の 支払이 困難할 만큼 赤字가 增大한 理由로서는 ①6個

年計劃의 經濟建設을 빠르게 하기 위하여 機械, 플랜트類 등의 輸入을 大幅 增大하였다는 것 ②西方先進工業國에 對한 鉛·亜鉛·銅 등의 非鐵金屬의 輸出이 74年以後 이들 先進工業國의 景氣不振에 依한 輸入減退 및 非鐵金屬 時勢의 下落으로 인하여 不振하게 된 것 ③貿易의 擴大에 鐵道 船舶 등의 輸送能力이나 港灣設備의 擴充이 뒤따르지 못해 輸出品의 積荷가 圓滑하게 되지 않는 등의 輸送의 緊張이 發生한 것, ④72年까지는 80%가까이가 共產圈貿易이었으므로, 西方側諸國과의 貿易經驗이 적었고 또한 西方側諸國과의 貿易이 擴大된 時期가 때마침 石油波動에 따른 世界 經濟 및 貿易에 커다란 變動이 생기고 있던 時期와 一致했기 때문에 이러한 情勢變化에 對하여 經驗不足으로 因한 對策 講究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 등이 一般的으로 指摘되고 있다. 貿易代金の 支払遲延問題가 發生한 原因은 要컨대 ①72年의 南北韓의 相互往來에 의해서 눈 앞에 보게된 韓國經濟의 成長에 刺戟을 받아 北韓이 韓國과의 經濟建設 競争에 뛰어들어 무리하게 經濟建設을 強行했다는 것 그리고 ②北韓의 主力 輸出品目이 非鐵金屬 등의 一次產品이라는 事實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輸出産業을 갖지 않는 北韓經濟는 石油波動에 對해서 體質적으로 재빠른 對應을 할 수 없었고 石油波動後의 새로운 國際價格體係에 따라 갈 수 없는 經濟體質의 脆弱性을 露呈했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歐州各國에 對한 支払狀況

歐州各國에 對한 貿易代金の 支払도, 債權國과의 個別交渉에 의하여 支払을 延期하고 있으나, 債務支払을 爲한 事情은 반드시 順調롭지는 않

는 것으로 보인다.

(1) 프랑스, 英國, 西獨의 경우 - 이 3個國과는 77年 3月, ①金融債權에 대해서는 總額 3億 7,100萬 독일 마르크의 支払을 猶豫하고 北韓은 78年 4月부터 84年 4月까지 21回로 나누어 返濟한다. ②輸出信用(4億 8,800萬 스위스 프랑 및 3億 2,300萬 독일 마르크)에 대해서도 返濟를 延期하고 78年 11月부터 83年 11月까지 21回로 나누어 返濟한다는 것으로 合意되었다. 이 合意에 의하여 78年 4月, 78年 11月에 各各 第一回分の 支払이 實行되었으나 ①의 金融債權의 利子에 對해서는 77年 7月에 第1回의 支払이 이루어질 豫定이었던 것이 9月로 넘어가고, 게다가 支払額은 豫定の 10% 뿐이었다. ②의 輸出信用의 利子에 대해서도 豫定보다 1個年 늦게 77年 7月에 第1回의 支払이 있고 12月에 第2回의 支払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豫定の 三分之一뿐이었다.

(2) 스위스의 경우 - 北韓이 遲滯利子を 支払한다는 것을 條件으로 하여 約1億프랑의 債務를 4年間 延期한다는 協定을 77年 4月에 締結했다. 이에따른 延滯利子の 第1回의 支払은 79年 12月末로 豫定되고 있다.

(3) 스웨덴의 경우 - 北韓에 對해서 6億스웨덴 크로네의 債權을 가지고 있으나 輸出企業이 輸出保險의 適用(後述함)을 받았기 때문에 債權者는 國營인 輸出信用保證委員會로 되어 있다. 北韓이 76年 6月까지 4,000萬 크로네를 返濟한다는 條件으로 輸出信用의 2年間 支払延長을 認定하는 妥協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北韓側이 條件으로 되어 있는 4,000萬 크로네의 支払을 마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妥協된 것이 發効하지 않았다. 現在도 利子만을 不規則적으로 支払하고 있다고 한다.

(4) 오스트리아의 경우 - 約16億 오스트리아 쉐링의 債權을 가지고 있으나 77年以後 利子 2,500萬쉐링 元金 5,500萬 쉐링을 支払했을 뿐이다.

그밖에 今後 支払의 不履行이 念慮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한 西歐의 北韓債務에 關한 銀行借款團에는 소聯이나 오스트리아도 參加하고 있는 것으로 傳해지고 있다.

### 3) 北歐 外交官 事件

1976年 10月中旬 頃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北歐 4個國에서 北韓의 大使館員들이 담배, 술, 때로는 麻藥의 密輸入, 暗去來 등에 從事하고 있었다는 것이 發覺되어 차례로 國外退去의 命令을 받고 그 數가 16名에 達한다는 外交面에서는 커다란 失點이 되는 外交官의 不祥事件이 發生했다. 그 影響은 스위스, 프랑스, 이란, 오스트리아 등에도 波及하여 이들 여러나라에서도 北韓外交官들의 行動에 嫌疑를 걸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 問題는 75年以後 表面化하게 된 北韓의 對外債務 支払 遲延問題와 깊은 關係를 갖는 것으로서 外貨不足에 의한 在外 公館費用의 缺乏을 非常手段에 의해서 調達하려는 움직임이 나온 反面 支払의 遲延으로 被害를 입고 있었던 유럽諸國의 反感이 上述한 바와 같은 形態로 表面化한 것이라 볼 수 있다.<sup>30)</sup>

#### 第四節 對日債務의 不履行問題

北韓의 對日債務의 不履行問題에 대한 概要와 今後의 展望에 對해서 一括해 두기로 한다.

##### 가. 債權決濟延期的 經緯

北韓의 日本에 對한 貿易代金決濟의 遲延에 나타나기 始作한 것은 1974年 5月頃이라고 말해지고, 同年 7月 北韓의 朝鮮貿易銀行의 西獨 마르크計定을 保有하고 있는 北歐의 某銀行으로부터 日本의 外換銀行에 對해서 決濟資金不足으로 인하여 支払을 停止한다는 電報가 들어온 때부터 그 徵候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5年 2月에 朝鮮貿易銀行으로부터 日本의 外換銀行에 對해서, 6個月의 支払延期를 要求하는 電報가 들어오게 되자 表面化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75年 2月에서 3月에 걸쳐서 日本의 某大 外換銀行의 首腦가 平壤을 訪問하여, 事態의 解決을 圖謀하려고 하였으나, 75年 5-6月頃의 決濟狀況은 日本에서 北韓으로의 直輸出分の 유잔스어음은 全無의 狀態로 되고, 朝鮮貿易銀行으로부터는 다시 6個月間의 決濟延期를 要請해 오게 되었다.

벌써 이 때에는 西獨 기타의 歐州諸國가운데서 北韓에 관한 輸出保險의 引受를 停止하고 있다는 것등이 明白해지게 되자, 이 決濟遲延의 問題에 注目하고 있었던 日本政府는 75年 7月 8日 以後 北韓에 關한 輸出어음에 對해서는, 通産省의 事前承認이 없으면 輸出保險의 對象으로 하지 않는다는 엄한 制限措置를 취하게 되었다. 이 措置는, 一般的으로 「承

認基準이 公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事實上的 引受停止와 같다」고 받아들여 日本의 各銀行은 表面에 나서서 北韓에 關한 輸出어음의 買入 制限을 行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狀況下에서, 75年 7月 宇都宮德馬議員 및 日朝貿易會首腦등의 平壤訪問에 의해서 7月에서 8月에 걸쳐서, 1,000 萬달러의 支払이 이루어졌으나, 決濟遲延狀況에 基本的인 好轉을 볼 수 없는 가운데 가을에 들어가서 北韓側으로부터 延期에 對해서 再考해달라는 意向이 傳해져오게 되었다.

1976年에 들어서자 北韓側으로부터 2年延期의 要請이 日本의 各銀行에 續續 들어오게 되고 支払延期에 對한 北韓側의 意向을 確認하기 爲하여, 日朝貿易會의 相川理一郎專務가 5月에 平壤을 訪問하게 되었다. 當時 日本側關係者사이에서는 北韓側의 延期要請에는 應하지 않을 수 없다는 共識이 생겨나고 있었으나, 延期의 條件과 延期後의 決濟의 展望에 對해서 念慮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와같은 經過를 거치면서 1976年 12月이 되자 日本側의 代表團인 日朝貿易會의 代表團이 平壤을 訪問하여 北韓의 貿易銀行代表團과의 사이에서 問題處理를 爲한 會談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會談은 「平等互惠의 原則에 立脚하여 兩者間의 貿易의 長期的인 發展을 圖謀한다는 友好的인 精神」으로 進行되어, 76年 12月 27日 ① 800億日本圓의 債務는 2-3年間 支払을 延期하고, ②그 동안의 延滯利子를 半年마다 支払한다는 것으로 合意하고, 日本側關係者가 共同으로 合意內容의 圓滑한 履行을 圖謀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여 日本貿易決濟問題協議會를 設立하게 되었다.<sup>③)</sup>

나. 1979年 8月の 合意

76年 12月 上述한 바와 같은 合意가 「友好的인 精神」으로 일단 成立은 하였으나, 延滯利子는 78年 1月分까지의 部分이 뒤늦게 9月에 支払된 것을 最後로 하여 停止되어 버렸고, 延長期限이 到來한 元金の 支払은 一切 行해지지 않았다. 延長期限이 지나간 元金은 79年 7月末까지 約 400億日本圓에 이르고 거기에 다시 延滯利子が 붙어, 日本의 債權額은 7月末로써 850億日本圓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日本의 債權者는, 개중에는 大型綜合商社의 代辦(代行하는 會社) 商社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 大部分은 中小企業이다. 故로 北韓의 支払遲延은 이들 日本側의 中小商社메이커에 있어서는 死活의 問題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 債權者의 사이에는, 輸出保險의 事故適用 - 이 輸出保險의 適用은 貿易相對國을 債務不履行國으로 取扱하여, 事實上的 “破産宣告” 를 하는 것과 같은 重大한 意味를 갖는다. - 을 申請하려는 움직임이 強化되고 있으며, 事實 한 商社가 25億日本圓分을 申請, 日本通産省도 「中小商社를 救濟하기 爲한 特別措置」의 形式으로 例外的으로 處理하여, “破産宣告” 와 연결되는 輸出保險事故의 「公告」를 避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問題는 日本의 債權者사이에서 北韓에 對한 不信感이 極度로 高調되었다는 데 있다. 그 理由로서는, ①北韓이 76年 12月の 兩者의 合意를 아주 簡單하게 休紙化한 點, ②未払을 持續하는 한편으로, 現金베이스로 日本으로부터 機械, 트럭등을 旺盛하게 買入하고 있다는 것, 나아가서는 ③昨年 西獨으로부터 大型의 火力發電플랜트를 現金으로 輸入했다는 데에 對한 反撥등을 들 수가 있다. 特히 ②에 對해서는 債權을 가지고 있는 日本

의 商社는 오래전부터 北韓과의 貿易에 종사해온, 이른바 “友好” 商社인 것이다. 北韓과 日本의 貿易은 76年을 밑바닥으로 하여 回復되어가고 있으나(第8表 參照), 그러나 그 去來의 大部分은 延滯債權을 가지고 있는 오랜 “友好” 商社가 아니고 實績이 없는 新參企業으로부터의 現金買入이기 때문에 債權者의 神經을 찌르는 結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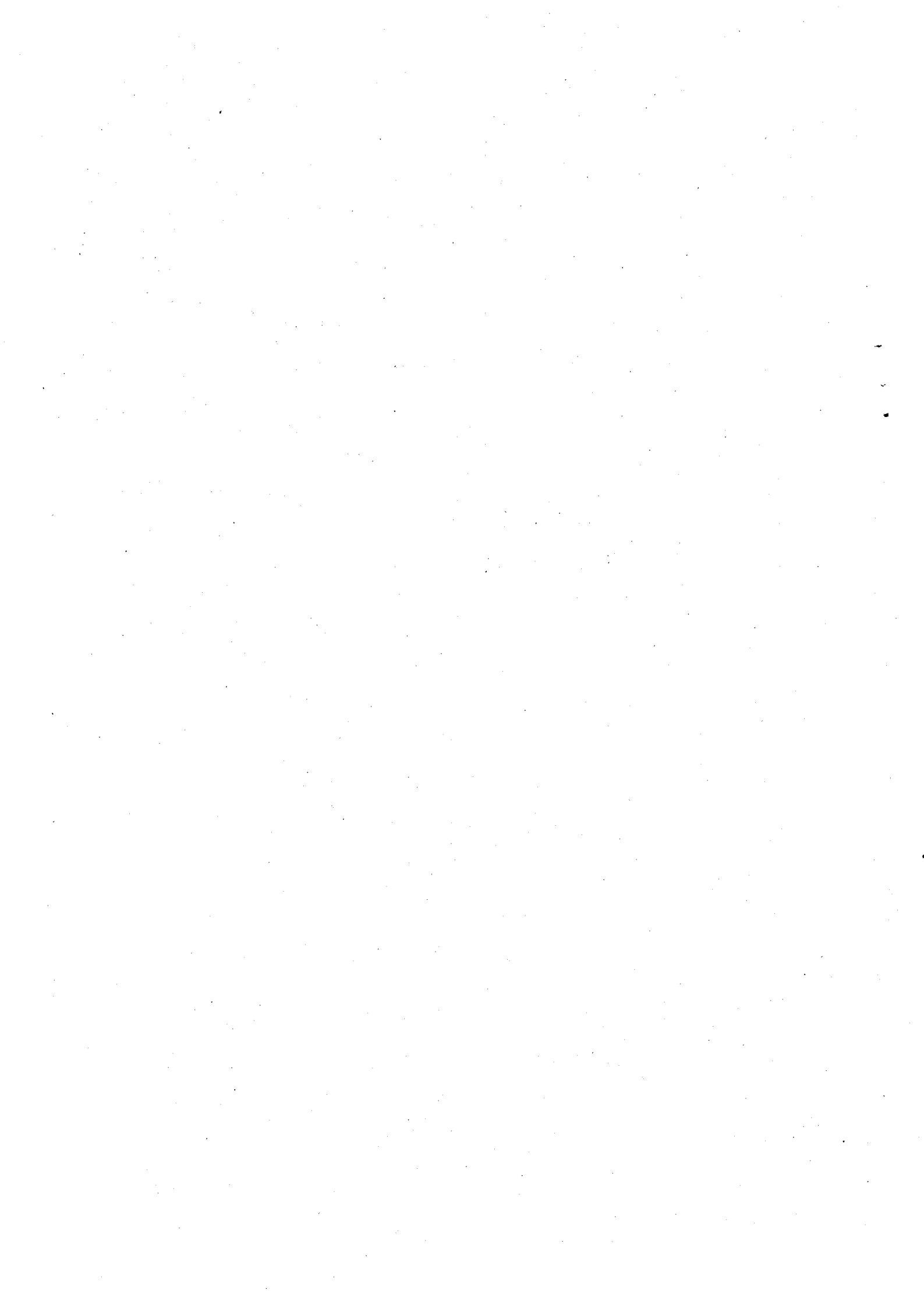
이와같은 狀況下에서, 더구나 78年부터 第2次7個年計劃이 進行中인 北韓은 西方側諸國 특히 日本과의 貿易擴大를 為해서도, 이 支払問題의 解決이 焦眉의 急務로 되었다. 이리하여, 7月에 北韓의 朝鮮貿易銀行代表團(方基永 團長)이 訪日, 日本側의 日朝貿易決濟問題協議會(野村嘉彦代表)와의 사이에서, 8月 28日 이 問題의 解決에 關한 基本合意書에 調印하기 에 이르렀다.

이번의 合意는 ①北韓側은 未払延滯金利 約 100億日本円가운데 60%를 79年内에 나머지를 80年 6月까지 支払하고, ②元金支払은 89년까지의 10年間 均等償還으로 한다는 것이다.

外貨事情이 좋지않은 北韓은 이 合意로써 한 숨 돌리게 되었지만, 이번 支払期限의 延長에 의해서 反對로 返濟額은 1,250億日本円에 이르게 되어 負擔은 오히려 增大하게 되었다. 그 뿐 아니라 合意에 있어서 日本側은 今後에 만약 한 번이라도 支払의 遲延이 있으면 “破産宣告”로 연결되는 輸出保險의 適用申請을 한다는 것을 北韓側에 承認시켰다고 말해진다. 그러므로, 英·西獨等 西歐諸國과의 사이에서도 같은 問題를 안고 있는 北韓에 있어서는 今後로는 정말 뒤로 내뺄 수 없는 꾀잡못할 狀況에 처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 第四章 經濟交流의 展望과 그 影響



## 第四章 經濟交流의 展望과 그 影響

### 第一節 經濟交流의 展望

北韓과 日本과의 經濟交流은 ①今後에도 日本政府가 對韓國關係를 損傷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經濟, 人事, 文化등의 交流를 쌓아갈 것 같으며 ②코콤(cocom, 對共產圈輸出統制委員會)의 規制를 받을 것이고 ③北韓側이 極度の 外貨不足에 빠져있다는 것 ④北韓經濟 自體의 規模가 아직 小規模라는 것등의 理由때문에 飛躍的으로는 擴大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徐徐히 그 交流를 深化시켜 나갈 것이 豫想된다. 以下 今後의 展望에 對해서 簡單하게 보기로 한다.

#### 가. 經濟外的 與件

70年代는 바야흐로 아시아에 있어서는 激動의 年代였고, 그러한 움직임은 더욱 더 活潑해져가고 있다. 既述한 바와 같이 71年 7月の 닉슨美大統領의 訪中 發表에서 비롯하여 激動을 繼續하고 있는 아시아情勢는 最近에 이르러 78年 8月の 日·中平和友好條約의 締結, 79年 1月 1日부터의 美·中國交正常化, 79年 1月の 베트남軍의 캄보디아侵攻과 프놈펜攻略, 그에 이은 中越戰爭의 勃發이라는 國際事件들은 모두가 아시아全域에 強烈的 衝擊을 주었다. 특히 中·소對立이 固定된 한편 日·中, 美·中의 大接近, 中越戰爭의 勃發은 韓半島를 에워싼 이른바 「冷戰構造」의 기틀을 崩壞시키기 始作하였다. 지금까지 同一 基盤위에서의 團結을 자랑하고 있던 社會主義諸國의 結束의 崩壞, 美帝國主義, 日本軍國主義라하여 지금까지

지 敵으로 삼고 있던 盟友 中國의 美日에의 接近이라는 事態의 急變에 直面하여 北韓은 必로 스스로의 座標軸을 再設定하는데 苦心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7年前의 71年7월에 닉슨訪中 發表時에는 美帝國主義侵略者가 白旗를 들고 北京을 訪問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닉슨의 訪中은 勝利의 行進이 아니고 敗北의 行脚이라고 論評하여 이른바 「닉슨訪中 白旗論」<sup>32)</sup>을 主張했던 北韓이 78年8月12日의 日中條約의 調印에 對해서는 半年이 지나도 여기에 對해서는 公式論評을 하지 않았으나 78年12月16日 發表된 美中正常化에 對해서는 그 事實報道를 곧 장하고 1週後에는 評價를 加한 論評을 發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곧 北韓이 그 座標軸의 再設定에 苦心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東北(아시아에 있어서의 美·日·中 三國에 의한 初期的인 安保體制가 誕生하고 韓半島에도 무엇인가의 運命이 열릴려고 하고있는 狀況下에서 北韓이 取할 것으로 생각되는 對應策 가운데서 ①스스로 主張하는 方向에서 統一實現을 主張함으로써 對韓強硬姿勢를 維持하고 ②中·소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路線을 繼續 取하면서 ③美日兩國에의 接近을 피한다는 것이 가장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될 것이다.

한편 日本側에 있어서도 既述한 바와 같이 自國의 安全保障에 있어서 不可缺의 條件인 韓半島의 平和維持를 위해서도 北韓의 國際社會(특히 東北아시아의)에의 參加를 希望하는 氣運이 높아지고 있고 게다가 一部라고는 하지만 北韓을 支持하는 日本人層이 存在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今後에도 北韓과의 交流를 深化시키려는 情勢도 있다는 것도 確實하

다. 그러나 日本으로서 北韓과의 交流은 어디까지나 韓國과의 友好關係를 損傷하지 않는 範圍內에서의 交流의 擴大라는데서 逸脫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것은 주로 貿易을 中心으로한 經濟交流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北韓側으로서도 北韓을 支持하고 있었던 強力한 두가지 勢力(소聯과 中國)가운데서 하나의 勢力이 急速하게 弱화되는 實感의 空虛속에서 日本과의 이른바 「國交」正常化를 戒할 狀況에 있지 않다는 것은 明白하다. 南北韓의 人口數와 經濟力에 커다란 隔差가 생겼다는 現實에 더하여, 既述한 바와 같이 國際環境이 急變하고 있는 가운데, 日本과의 「國交」正常化를 主張하는 일은 바로 스스로의 그 自體를 稀薄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78年 5月の 日本社會黨과의 共同코뮤니케에서도 「國交」正常化에 對해서는 言及하지 않았다는 것은 既述한 바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美日에의 接近을 圖謀하면서도 스스로의 存在와 存立을 「認知」받기 위해서도 統一에의 志向을 主張하는 가운데 加一層 對韓強硬策을 펴지 않을 수 없다는 矛盾을 가지게 될 것이다.

#### 나. 經濟的 與件

兩者間의 貿易去來는 第8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4年을 피크로하여 激減했던 것이 延期된 債權의 決濟遲延이라는 問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78년에는 75年水準에까지 回復하고 79年에 들어와서도 增大傾向은 持續할 氣味를 보이고 있다(第10表 參照).

이와같은 情況속에서 既述한 바와 같이 今年 8月 28日 兩者間에서

懸案이 되어 있던 延期된 債權의 決濟問題에 關한 合意가 成立한 것은 兩者間에 貿易擴大에 對해서 일단 基礎條件이 갖추어 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決濟問題가 우선 妥決됨으로써 今後 日本의 關係業者사이에서는 北韓의 主要 輸出品目인 鑛産物이나 農産物의 關稅引下 輸入制限緩和, 融銀融資의 擴大, 民間銀行에 의한 뱅크·론등 貿易擴大에 必要한 措置를 要請하는 움직임도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合意에 의해서 그것이 곧 兩者間에 있어서 貿易擴大의 基礎條件 構築이 되느냐 어떠한 것은 北韓側이 約束의 履行을 忠實하게 지킬 것인가 아니 지킬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合意에 있어서 今後 한번이라도 支拂의 遲延이 있으면 輸出保險의 適用 申請을 決行한다는 同意를 얻었다고 말해지는 것은 日本側의 債權者가 支拂의 延期(10年間으로 延長했다)에 따른 危險의 代償을, 萬一의 경우에는 輸出保險의 適用申請에 의해서 北韓을 國際적으로 債務 不履行國으로 取扱하여 事實上的 破産宣告를 함에 의해서 스스로의 債權을 回收하고 逆으로 北韓에 對해서는 國際적인 商去來에 支障을 가져오게 하는 打擊을 준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當分間 이 懸案事項으로서 이번 合意에 의한 約束이 實行되느냐 어떠한가 하나의 焦點이 된다. 日本側 關係者사이에서는 兩者間의 貿易正常化가 피해였으므로 貿易이 擴大되면 어떻게 處理될 것이라는 樂觀적인 見解가 있는 反面, 相當히 어려운 情勢에 놓여있다는 意見도 많다. 그 理由로서 ①第2次7個年計劃의 初年度인 78年은 시멘트등 工

業生産에서는 前年比 17.0%가 增加하였으나, 큰 旱魃로 穀物生産이 不振  
했다는 것 ② 78年の 對外貿易에서 輸出이 增大했다고는 하나 貿易収支  
는 赤字이며 여전히 外貨不足의 狀況下에 있다는 것 ③ 第2次 7個年計劃  
達成을 위한 플랜트類의 輸入이 必要하다는 것 ④ 遲延問題는 日本뿐만  
아니고 西歐諸國과의 사이에도 存在한다는 것 등을 들 수가 있다.

그 어느 쪽이 될 것인가는 今後의 推移를 觀望할 수 밖에 없으나,  
日本과의 貿易關係에 對해서는 第2次 7個年計劃을 위한 多額의 投資를  
必要로 한다는 것을 勘案한다면 ① 資本財의 日本으로부터의 輸入의 增大  
에 依해서 日本의 出超傾向은 避할 수 없다. ② 兩者間の 貿易擴大가  
되려면 北韓의 輸出增大 即 日本의 輸入增加가 무엇보다도 重要하지만  
이번의 石油波動에 의한 日本側의 景氣後退와 그에 따른 輸入減退의 可  
能性 ③ 北韓側의 外貨事情 等等 貿易擴大에는 克服해야 할 難題가 가로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日本側의 輸入品の 大部分은 非鐵金屬, 無煙炭, 水産物, 食料品等  
이지만 現在 이것들은 中國의 產品등과 競爭하는 것이며, 日本側의 輸入  
擴大, 安定化를 위해서는 去來方法이나 品質管理등의 面에서 여간한 改善  
努力이 이루어지지 않는 限, 日本의 輸入擴大에도 限度가 있다는 日本側  
의 소리가 높다.

게다가 이것은 直接的으로는 兩者間の 貿易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北  
韓이 輸出에 注力하고 있는 시멘트나 鋼材, 非鐵金屬등에 對해서 日本以  
외의 第三國에 輸出을 擴大하기 위해서는 全世界에 販賣網을 가진 莫強  
한 日本大型綜合商社의 協力を 求하는 케이스도 생기게 될 것이다.

## 第二節 經濟關係擴大의 影響

上述한 바와 같은 兩者間의 經濟關係의 推移는 北韓社會에 어떠한 影響을 주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南北韓의 關係에 어떻게 反映되어 나타나는 것일까.

### 가. 北韓社會에 주는 影響

經濟關係의 擴大는 말할 것도 없이 兩者間의 經濟的利益的 增大도 되는 것은 明白하다. 그러나 78年의 北韓의 日本에 對한 輸出이 總輸出額에 占하는 比率은 24.3%, 日本으로 부터의 輸入이 總輸入額에 占하는 比率은 38.3%였는데 對하여, 同年의 日本의 北韓에 對한 輸出은 總輸出額의 불과 0.19%, 北韓으로부터의 輸入의 比率도 불과 0.14%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北韓과 日本과의 經濟力 그 自體에는 커다란 隔差가 있다. 따라서 兩者의 經濟交流의 擴大는 아직까지도 北韓社會 특히 北韓經濟에 상당히 影響을 주어왔고, 또 今後 더욱 더 커다란 影響을 주게 될 것이다.

上述한 바와같은 兩者間相互의 貿易去來에 占하는 比率의 差에서도 明白한 바와 같이, 日本側에서 보면, 兩者間의 交流가 個個의 業者 혹은 業界레벨의 經濟的 利益的 追及이라는 마이크로側面에서 보는 경우 및 非鐵金屬을 中心으로 한 原資材의 供給源으로서의 重要性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否定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메크로的으로 보는 경우에는 日本政府가 말하는 이른바 「全方位外交」를 포함한 日本自身の 安全保障과의 關聯性 때문이라고 理解해야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兩者의 交流



擴大가 北韓에 주는 影響은 상당히 多方面에 걸쳐서 波及될 것으로 생각된다. 事實 既述한 바와 같은 貿易代金未拂問題에 對處하는 兩者間(日本側은 일단 民間의 關係者로 되어 있으나, 그 裏面에 있는 日本政府)의 態度에도, 이 事實은 明白히 反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兩者의 貿易關係의 擴大를 위해서는 現實問題로서 먼저 무엇보다도 北韓의 日本에 對한 輸出을 어떻게 하여 增大시킬 것인가, 換言하면, 무엇을 輸出할 것인가 하는 것이 先決問題로 된다. 外貨不足으로 苦心하는 가운데 今後의 經濟建設의 必要에서 日本으로부터의 플랜트類 등의 資本財의 大量輸入을 圖謀하기 위해서는, 日本에 對한 輸出擴大를 包含한 輸出商品의 開發이 必須條件으로 된다. 그러나 現在까지의 北韓의 主要 輸出品目은 農水産物・非鐵金屬등을 中心으로 한 一次産品이다. 一次産品 輸出의 所得彈性이 낮고, 그 때문에 一次産品の 輸出에 依存하고 있는 開發途上國이 大幅的인 貿易赤字에 苦悶하게 되었으며 이제 이것이 全世界的인 關心事로 되고 있다는 것은 今年 5月の 마닐라에서의 UNCTAD (UN貿易開發會議)의 最重要議題의 하나였다는 것에서도 明白해진 事實이라 하겠다. 北韓도 그 例外는 아니다.

따라서 北韓이 今後 日本을 包含한 貿易을 擴大해가기 위해서는, 輸出産業의 育成이 不可缺의 條件으로 된다. 一次産品이 아닌 輸出産業을 育成하여 工産品을 中心으로 全世界의 市場에서 競争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當然히 近代的인 設備를 가진 企業工場과 技術이 必要하다. 地理的으로도 歴史的으로도 關係가 깊은 日本과의 交流擴大가 더욱더 바람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大量生産에 의한 코스트引下와 品質의 向上을 圖謀해가는 近代的인 産業의 育成에는, 가령 그것이 輸出産業으로서 育成한다고 할지라도 國內需要의 確保라고 하는 面에서도, 最底 4~5,000 萬人の 人口數가 있다는 것이 前提條件으로 된다. 그러므로 1,700 萬人이라고 하는 北韓의 人口數는 勞動力의 絶對的인 不足의 根本的인 原因이 될 뿐 아니라, 近代的인 産業育成에 있어서 最大의 隘路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貿易擴大策으로서 北韓이 取할 수 있는 當面한 對策은 一次産品の 増産을 圖謀하면서도 一次産品の 加工輸出, 어떤 種類의 産業에 特化한 技術集約的인 輸出産業의 育成이라고 할 것이다. 先進技術의 導入 특히 日本에서의 導入이 最大의 焦點이 된다. 또 先進技術의 導入없이는 勞動力不足, 電力不足, 輸送의 緊張等等에 의하여 招來된 北韓經濟가 當面하고 있는 固難을 解決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經濟交流의 擴大에 의한 去來額의 增加나 技術導入이 盛行함에 따라서, 當然히 人事의 往來, 情報의 相互交換등도 增大하여갈 것이다. 經濟關係의 擴大가 北韓社會에 미친 影響으로서는 貿易去來의 量的擴大가 北韓의 經濟建設에 어떤 플러스要因으로서 作用하는 것 以外에, 이 人事, 情報의 相互交流가 주는 効果는 看過될 수 없는 커다란 것이 될 것이다. 오히려 長期的觀點에서 본다면, 이러한 影響쪽이 훨씬 크게 作用할 것이다. 어떤 意味에서는 世界에서 가장 自由로이 行動하는( 주로 思想 經濟活動面에서 ) 日本과의 人事·情報의 相互交流는 世界에서도 가장 閉鎖的인 社會를 形成하고 있는 北韓에 커다란 影響을 주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當面하고 있는 經濟的인 諸困難으로부터 脱脚하기 위해

서는, 西方側諸國(특히 日本)과의 經濟交流의 擴大가 必須條件이 되고있  
는 北韓으로서는 自由主義圈과의 經濟·人事·情報등의 相互交流는 一面에  
있어서 北韓經濟에 플러스로서 作用하는 面을 가지는 同時에, 다른 한편  
에서는 戰後 30年間に 걸쳐서, 國民總動員體制의 確立이라는 抑壓에 의하  
여 經濟建設을 遂行해온 極도로 閉鎖的인 北韓社會를 否定하는 作用까지  
도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전의 스탈린批判, 現수의 毛澤東批判이라는 歴史的 事實을 參照  
할 것도 없이, 이미 말한 바와 같은 金日成神格化에 까지 이르른 北韓社  
會에 形成된 異常한 意識構造는 이대로 두더라도 時間의 흐름과 함께 批  
判의 對象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自由主義的인 合理主義的 精神은  
이것을 一層 저속하는 作用을 하기 때문이다.

또 이미 말한 바와 같이 北韓이 日本以外的 第3國에 輸出增大를 圖  
謀하기 위해, 日本商社의 힘을 빌리게 된다면, 이 事態에 一層 拍車를  
加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日本의 大型綜合商社는 共產圈을 包含하여  
文字 그대로 世界의 구석구석에 까지 그 販賣網을 갖고 있으며, 그 日本商  
社와의 關係가 密接하여 집에 따라, 北韓사람들이 밖에서 北韓社會를 보았  
을 때, 그것이 얼마나 獨善的이며 또 閉鎖的인 것인가를 鮮明하게 느끼  
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外部에 對하여 門戶를 開放하면 할 수록 國內적으로는 더한층 金日成  
神格化의 이데오로기의 抑壓이 必要하게 될 것이다. 이 矛盾에 어떻게  
對應해 가느냐가 今後의 北韓의 動向을 꿰뚫어 보는 決定的인 要因이  
되어질 것이다.

또 하나의 矛盾은 開發途上國(共產圈을 包含하여)의 經濟開發에 있어서 가장 緊急한 資本調達의 問題가 있다. 이미 中國이 美日兩國에 對한 借款供與를 希望하고 있는 現在, 「自力更生」을 原則으로 하고 있던 北韓이 「自力更生」의 原則을 버리고 借款에 의한 資本調達(이 경우 생 각될 수 있는 것은 주로 日本(民間)에서의 借款)에 의하여 經濟建設을 促進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自力更生」을 固守함으로써 韓國과의 經濟隔差의 一層의 擴大를 甘受하든가의 選擇에 關聯되는 矛盾이 이윽고 表面化될지도 모른다.

#### 나. 南北韓關係에 주는 影響

70年代에 들어와서는 東北아시아의 國際情勢의 變化와 北韓・日本間의 經濟交流의 擴大라고 하는 與件의 變化는 南北韓의 關係를 종전의 「韓國・美國・日本」과 「北韓・소聯・中國」이라는 冷戰的 對決圖式에서 「韓國」과 「北韓」의 對決이라는 當事者의 問題로 縮小하는 形勢로 되었다.

이러한 條件下에서 더구나 北韓이 서서히나마 門戶를 開放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下에 있어서는 兩者의 關係를 規定하는 것은 이미 이데오로기의 差異의 是非가 아니라, 人口數와 經濟力의 크기가 決定的인 役割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倍以上의 人口數를 갖고 經濟力에 越等한 差를 두어, 今後 더욱더 그 差를 擴大할 수 있게 된 韓國으로서는, 韓國이 對北韓對策에 對應하기 위한 行動選擇의 幅은 今後 더욱더 넓혀져 갈 것이다.

그런데 第14表는 1961年以後 今일에 이르기까지의 日本과 南北韓의 貿易去來額을 總括한 것이다. 表에서도 明白한 것처럼 南北韓과 日本과

의 貿易關係에 있어서는 韓國이 壓倒的인 比重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南北韓의 經濟力隔差가 確然해졌다는 것을 日本에게 明確하게 認識시키는 效果를 가질 뿐만 아니라 日本이 스스로의 安全保障과 經濟的 利益의 追求에 있어서, 南北韓雙方이 日本에게 있어서 어떠한 位置에 있는가를 明示하는 效果를 가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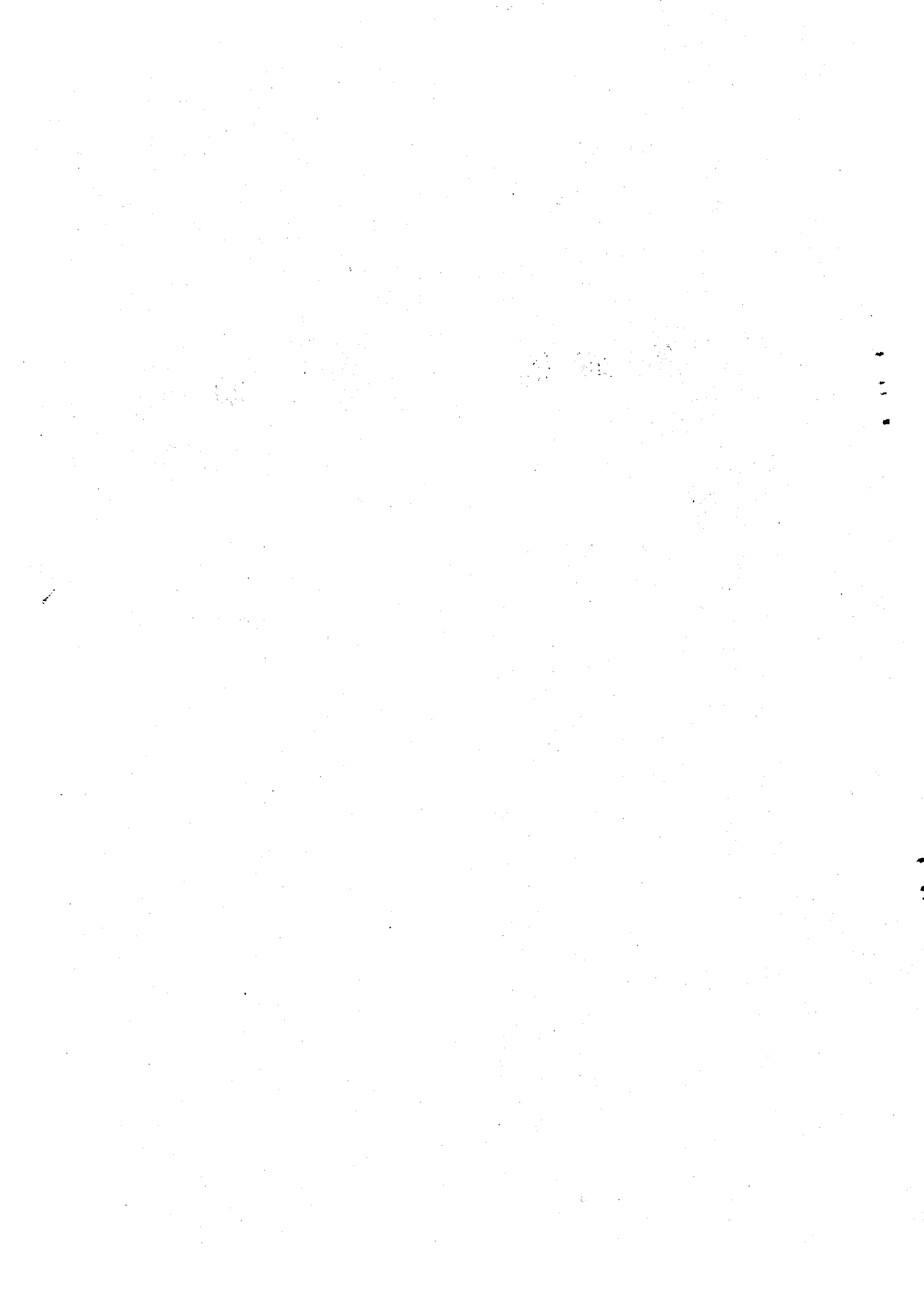
戰後 30년에 걸쳐서 形成된 日本의 一部人士에 의한 이데오로기偏重의 北韓禮贊의 風潮도 北韓과 日本과의 交流가 擴大해 감에 따라서 變色하는 徵兆를 보이고 있다. 그 가장 좋은 예는, 今年(79年)봄 平壤에서 開催된 世界卓球選手權大會에 同行한 日本人記者들의 北韓印象記이다. 지금까지의 日本의 報道記事와는 달리, 北韓社會의 極度の 閉鎖性과 金日成神格化的 異常性を 報道하기 始作했 던 것이다. 그리고 지난 8月19日 字의 日本 朝日新聞에 調査研究室主任研究員 田中 明氏에 의한 「自主적인 北朝鮮論을」이라는 論文이 掲載되기에 이르렀다. 田中氏는 既述한 北韓의 對外債務의 累積問題와 關聯하여 『다만 北朝鮮의 경우, 特異한 것은 이 問題가 浮上한 후에도 이 나라의 報道가 恒常 飛躍的인 經濟發展을 内外에 자랑하고 있다는 일이다. 그 패턴은 日本에 그대로 “輸入”되고 있다. 예컨대 未拂問題가 널리 알려진 후에도 著名한 經濟學者에 의해서 北朝鮮의 “奇蹟的인 經濟發展”을 讚揚하는 文章이 綜合雜誌에 連載되기도 한 것이다. 勿論 거기서는 對外債務의 問題등은 一顧도 하지 않고 있다』고 指摘하면서 『追從을 「友好」와 錯覺』하고 있으며, 『自主적인 北朝鮮論을』展開해야 한다고 提唱하고 있는 것이다.

今後 日本과 北韓과의 交流가 擴大함에 따라서, 이러한 傾向은 더욱

더 혼해질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그것이 또 北韓內에 있어서 北韓  
社會의 矛盾을 再認識시키는 導火線의 하나가 되리라 생각된다.

## 第五章 結

## 論





## 第 五 章 結 論

1978년부터 始作된 7個年計劃을 遂行하기 위해서도 北韓은 今後 日本과의 經濟交流를 점점 深化시켜나갈 것이다. 그러나 如前히 深刻한 外貨不足에 괴로워하고 있는 經濟에 있어서는 優先 무엇보다도 輸出品目 開發 및 輸出産業의 育成이 急務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 때문에도 日本과의 經濟交流를 한층 深化시켜 가지 않을 수 없는 要因이 있다.

그리고 北韓이 日本을 비롯한 西方側自由圈諸國과의 交流를 擴大해가면 갈수록 人事·情報등의 相互交流도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人事·情報등의 相互交換의 增大는 漸進的이긴하지만 北韓社會의 사람들로 하여금 自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社會가 얼마나 特異하고 또한 極度로 閉鎖的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은 經濟的인 메리트를 追求하여 對外的으로는 門戶를 開放해가면서 對內的으로는 金日成神格化的 加一層의 徹底化를 圖謀하여 壓制를 強化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矛盾에 어떻게 對應해 가느냐, 나아가서는 經濟建設의 成否와 壓制에 의한 國民 不滿의 表面化와의 力關係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등이 今後 北韓의 動向을 左右하게 될 것이다.

한편 70年代에 들어와서의 東北아시아 情勢의 激變은 韓半島를 둘러싼 南北韓 關係를 지금까지의 美日中소를 包含한 冷戰構造로부터 韓國과 北韓과의 當事者間的 問題어로 縮小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條件下에서는 兩者의 關係를 規定하는 것은 人口數와 經濟力의 크기가 決

定的인 役割을 하게 된다. 倍以上의 人口數와 經濟力에서 越等한 差를 가진 韓國으로서는 行動의 幅이 今後 더욱 더 擴大되어 갈 것이다.

( 1979年 9月 10日 )

## 註

- ① 『北韓經濟論』 北韓研究所, 1977年 pp.591~599
- ② 「緩衝期」는 最近에는 言及되고 있지 않으나 當時의 文献에는 大體的으로 宣傳되었다.
- ③ 『朝鮮中央年鑑』 各年度版으로부터 總合
- ④ 이무렵의 國家豫算歲入의 項目에 計上되어 있지 않다.
- ⑤ 66年 党代表者會議에 있어서의 金一副首相 報告
- ⑥ 『アジア動向報告』 アジア經濟研究所, 70年版 p...
- ⑦ 70年 11月, 第5回 労働党大會에 있어서의 金日成 報告中の 「社會主義經濟建設의 中心過程」
- ⑧ 70年 11月, 第5回 労働党大會에 있어서의 金一副首相 報告
- ⑨ 72年 4月 25日, 朝鮮中央通信
- ⑩ 73年 9月, 労働党 創建 25周年記念에서의 金一政務院總理의 報告
- ⑪ 金日成의 次男 金正一을 最高指導者로하여 組織된 青年中心의 「近衛隊」 「決死隊」 「突擊隊」라고 推測된다.
- ⑫ 76년에 들어와서 베테랑幹部의 死亡과 指導層의 移動
- ⑬ 75年 12月, 劍山鑛山의 從業員의 蹶起集會에서의 決議
- ⑭ 77年 12月, 最高人民會議 第6期 第1回 會議에 있어서의 李鍾玉 總理의 總括報告
- ⑮ アジア經濟研究所, 小牧輝夫氏의 推計 第一圖參照
- ⑯ 『アジア動向年報』, アジア經濟研究所, 79年版 p.64

- ⑰ 78年 11月, 労働党中央委員会 第5期 第17回 總會에 있어서의 討  
議
- ⑱ 「日本の 對北朝鮮貿易」, 吉田良衛, コリア評論, No. 129
- ⑲ 吉田良衛, 「前掲論文」
- ⑳ 日本 『通商白書』, 1960年, 61年版
- ㉑ 「크루레스」關係를 가지는 日本의 換銀行은 1977年 3月末現在, 三  
井, 住友, 東京, 三和, 北陸, 埼玉, 北海道拓植, 大和, 東海, 太陽神戸, 三  
菱, 富士, 第一勸業, 日本興業, 日本長期信用의 17行, 기타 在日外銀에  
서는 네델란드 銀行 神戸支店이 있다.
- ㉒ 朝總聯側에 의하여 設立된 것으로서 本社東京, 金万重社長. 資本金 6  
億 日本円
- ㉓ 1971年 9月 27日字 日本 「朝日新聞」
- ㉔ 本社東京, 古海忠之社長. 資本金 1億 日本円, 株主는 巨大企業 13社와  
水産關係 有力者 6人으로 構成
- ㉕ 『金炳植事件』 統一朝鮮新聞社(統一日報社의 前身), 1973年
- ㉖ 「北朝鮮經濟의 現狀」 日本貿易振興會, 1979年 4月
- ㉗ 同 上
- ㉘ 谷牧副首相이 55億 달러의 借款을 要請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79年  
9月 2日字 「日本經濟新聞」
- ㉙ 「北朝鮮經濟의 現狀」 日本貿易振興會 1979年 4月
- ㉚ 『アジア動向年報』 アジア經濟研究所 1977年版, p. 76
- ㉛ 「北朝鮮의 産業과 貿易」 日本貿易振興會, 1977年 4月

③ 71年 8月 8日 캄보디아의 시아누크 歡迎會에서의 金日成演說로서  
전해지고 있음.

---



## ABSTRACT

"The influence of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on the society in North Korea"

Man-Sub Sim

Although it was announced officially that North Korea has accomplished the first six-year plan started in 1971 at the end of August in 1975 as early as sixteen months she expected. North Korea has been got into the severe shortage of the international reserve and could not help asking the west countries to put off their claims. These situations involved the adjustment of the bad condition of the Balance of Payment in the period 1976-77. And then North Korea began to carry into the effect the second seven-year plan in 1978 which should be enforced broadly to cut down the designed scale in 1974.

On the other hand,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the east and North Asia in 1970s has entered upon a new phase because of the conclusion of the Japan-China treaty of peace and friendship and the normalization of the diplomatic rel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ina.

The change of these international affairs influences greatly on the economical and political aspects in the Korea peninsula. North Korea putting in practice the second seven-year plan in 1978 seems to wonder about how to establish her own axis of coordinate in the face of the obstinate opposition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China and the friendly approach between Japan, America and China. The primitive security system established by the friendly tripartite relationships will bring about the enlightenment of some fortune in Korea peninsula.

In view of the change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 North Korea not only keeps the impartial attitude to the Soviet Union and China, but also makes efforts to approaching friendly Japan and China.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must continuously take a firm attitude against South Korea.

In 1960s North Korea had more trade relations with communist block countries than west countries because she recognized the trade relations with communist block countries as very important and there was newly independent country. But, in 1970s North Korea changed greatly the foreign trade policy, and has



actively trade relations with capitalist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the inactivity in economic construction and answering to the appearance of incessantly born new industries.

The trade rel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began in 1961. In 1970s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promoted rapidly, strongly by the change of the international circumstances around the Korea peninsula and the conversion of the market policy. But, the amount of the foreign trade in North Korea achieved the peak in 1974 and gradually decreased. The failure of the six-year plan and the deterioration of the international reserve enabled North Korea not to settle up the balance of payments and brought about the contraction of the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Since they reached the agreement of how to settle the balance of trade deficits in August 1979, the two countries face the new position of their economic exchange. In spite of remaining with many difficult problems, the scale of the trade with Japan gradually tends to increase.

It is necessary that North Korea makes the gr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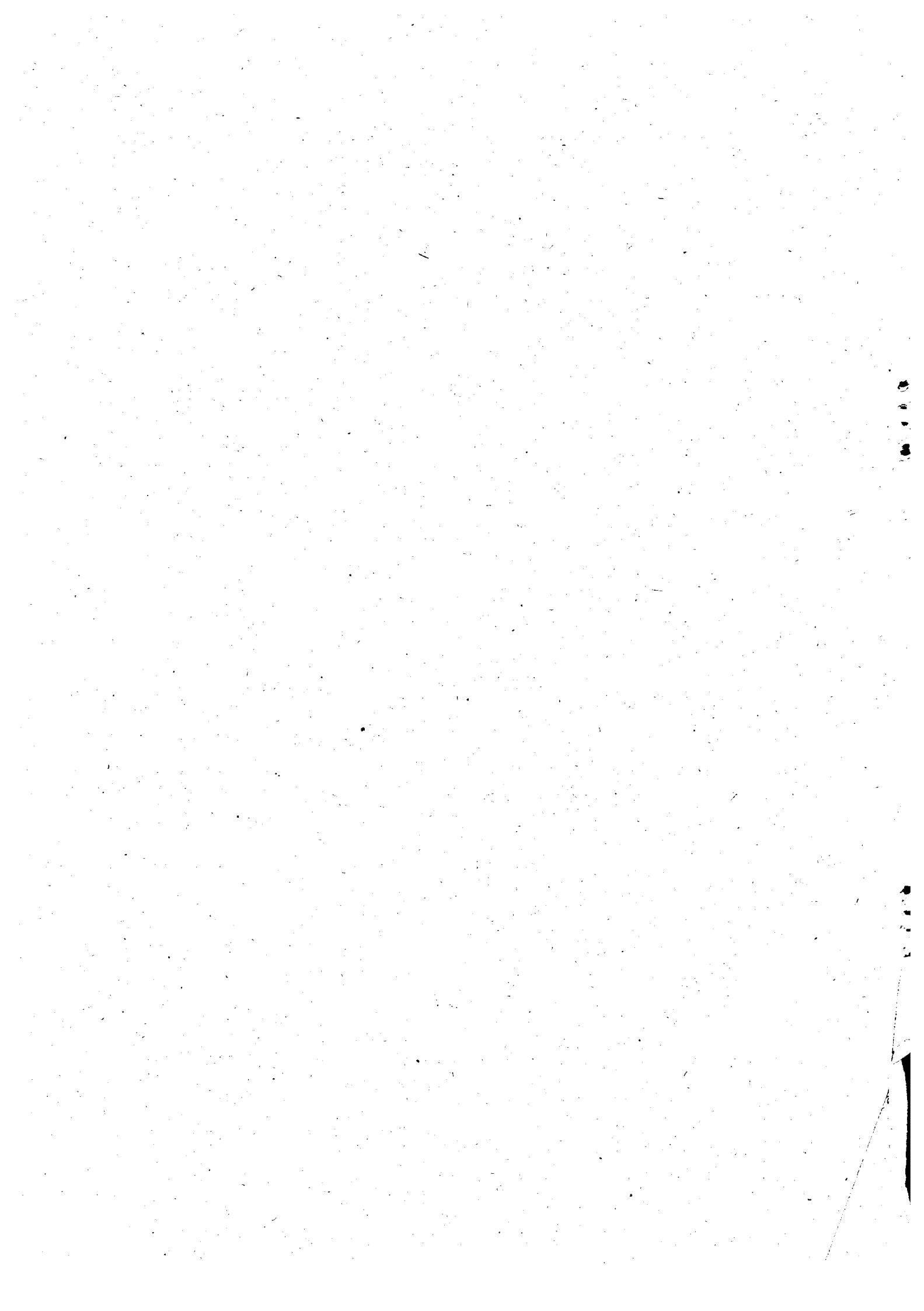
efforts to expand the exports of cement, steel materials, nonferrous metals and so on to the third countries except Japan, but once in a while North Korea asks the Japanese big business companies which have the sales network through the world to cooperat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foreign trade.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cannot develop closely without influencing strongly on the society in North Korea;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ic exchange involves the personal and the information exchanges. The information and the personal interchange with Japan which is the most opened society in the world will be sure to influence on the North Korea which is the most closed in the world. Because the economical, the personal, and the information, exchanges between the west countries and North Korea will have effects on the economy in Korea to conquer the economical difficulties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hand, to appose and impede what the closed society in North Korea should carry on the economic reconstruction with the national mobilization. It is a key point for North Korea to

cope with such a contradiction. We are looking forward to what North Korea will be in the near future.

The change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the east and North Asia and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ical cooperation with Japan have converted the showdown between "South Korea, America, Japan" and "North Korea, the Soviet Union, China" into the opposit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hat make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under these circumstances of the world? The population and the higher productivity surely have effects on the interes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us, as South Korea has not only more two times population than North Korea, but also higher productivity than North Korea, South Korea has the possibility broadly to pick out the course she should take in the future.



<第9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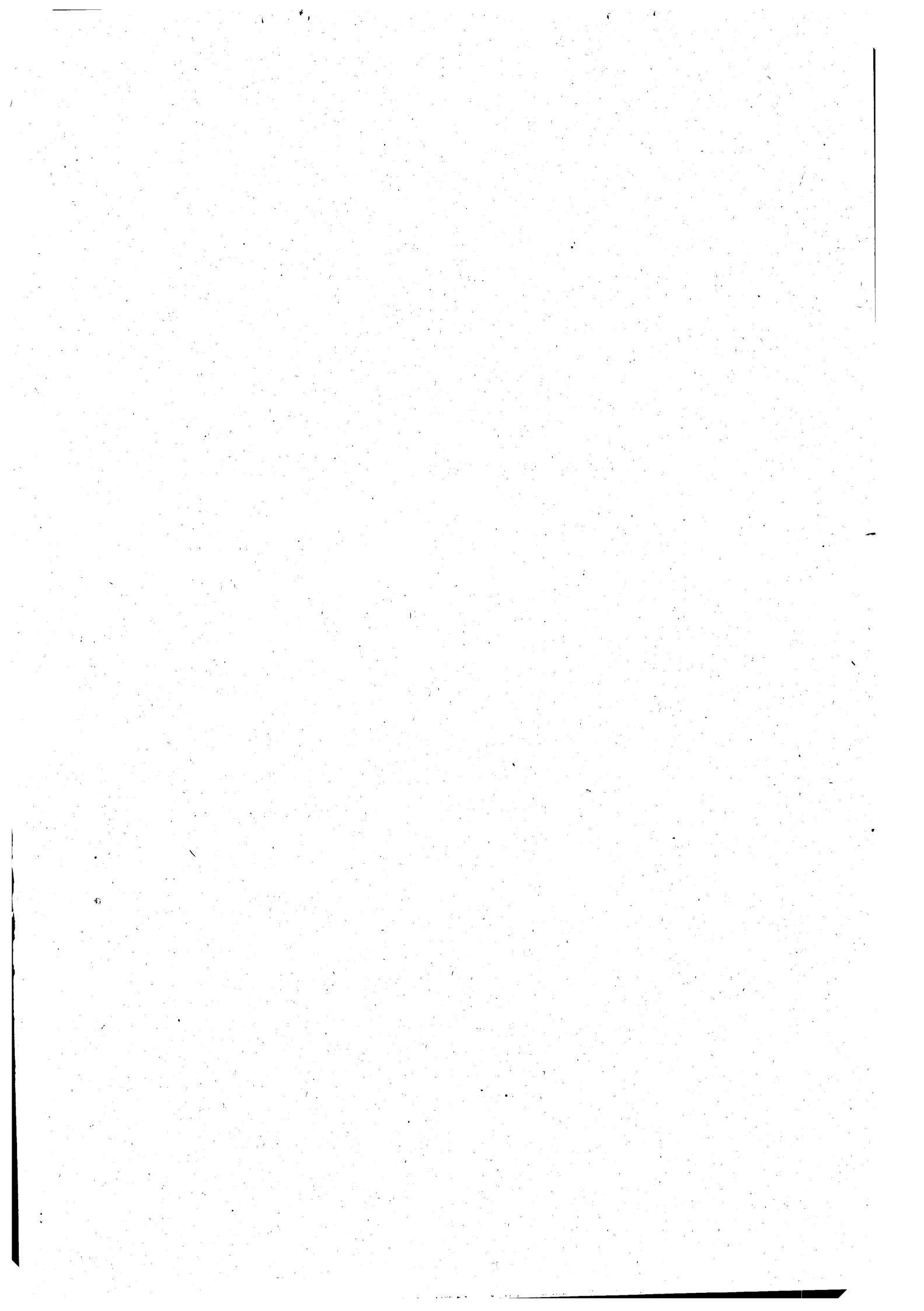
(1) 北韓の輸出

商品別貿易去來額

(単位：千ドル)  
比率：%

年別 商品別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輸入總計	3,460		4,533		9,430		20,231		14,723		22,692		29,606		34,032		32,186		34,414		30,059		38,311		72,318		108,824		64,839		71,627		66,618		106,862	
食料品	37	1.1	976	21.4	2,486	26.4	1,953	9.7	1,022	6.9	1,834	8.1	1,402	4.7	1,473	4.3	1,858	5.8	2,941	8.5	3,300	11.0	6,419	16.8	10,116	14.0	9,411	8.6	7,642	11.8	10,205	14.2	8,042	12.1	29,737	27.8
魚介類									379		457		666		771		553		1,920		1,966		4,027		6,987		6,678		4,378		4,939		3,732		17,363	
原料品			2,349	51.6	2,259	24.0	6,428	31.8	7,945	54.0	9,737	42.9	9,228	31.2	10,814	31.8	17,105	53.1	20,138	58.5	16,904	56.2	19,203	50.1	27,009	37.3	38,421	35.3	24,482	37.8	18,701	26.1	21,960	33.0	30,609	28.6
絹																																				
非鐵金屬礦物	243		193		130		202		1,299		1,685		1,497		2,089		2,617		4,612		3,681		2,605		5,086		7,805		7,837		3,696		3,899		8,975	
非金屬礦物			1,732		1,010		1,210		997		1,163		1,497		2,089		2,617		4,612		3,681		2,605		5,086		7,805		7,837		3,696		3,899		8,975	
礦物性燃料	66	1.9	83	1.8	196	2.1	486	2.4	199	1.4	944	4.2	1,454	4.9	1,490	4.4	825	2.6	1,384	4.0	1,185	3.9	938	2.4	982	1.4	8,264	7.6	1,184	1.8	2,193	3.1	1,866	3.0	1,413	1.3
石灰	66		83		196		486		199		944		1,454		1,490		825		1,384		1,185		938		982		8,264		1,184		2,193		1,866		1,413	
加工製品			1,145	25.1	4,460	47.3	11,364	56.2	5,557	37.7	10,182	44.9	17,512	59.2	20,248	59.5	12,365	38.5	9,936	28.9	8,602	28.6	11,731	30.6	33,778	46.7	52,605	48.3	31,393	48.4	40,307	56.3	34,267	51.4	43,483	40.7
化學品			5		0		10		9		2		63		366		139		61		145		1,300		1,379		779		920		429		1,002		42,367	
其他製品			1,108		4,422		11,352		5,548		10,156		17,447		19,881		12,255		9,829		8,447		10,424		32,342		51,766		30,461		39,877		33,264		42,367	
非鐵金屬			129		200		2,914	14.4	1,049	7.2	3,102	13.7											6,176	16.1	23,551	32.6	34,006	31.3	20,238	31.2	28,532	39.8	30,133	45.2	34,530	32.3
其他			0	0.0	29	0.3	1	0.0			1	0.0	9	0.0	8	0.0	3	0.0	15	0.0	68	0.2	20	0.1	432	0.6	123	0.1	133	0.2	223	0.3	483	0.7	1,620	1.5

出所：日本『通商白書』各年度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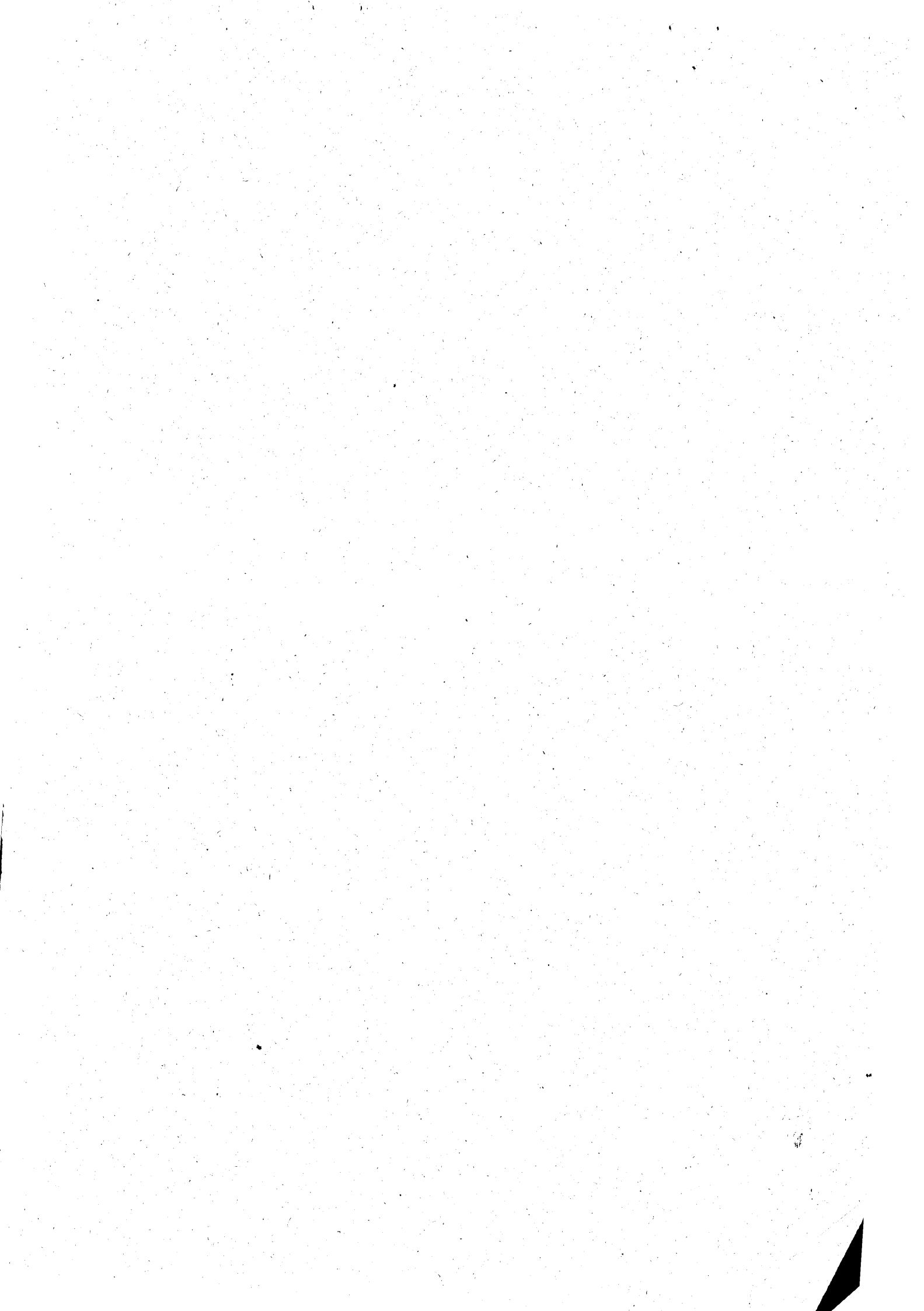


(甲) 日本對 輸出

(單位：千美元)  
比率：%

年別 商品別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輸 出 總 計	4,456		4,781		5,347		11,284		16,505		20,748		24,159		20,748		24,159		23,344		28,907		93,443		100,160		251,914		180,630		96,056		125,097		183,347	
食 料 品	0		0		6		4		0		110		197		110		197		165		125		113		149		199		44		142		206		575	
原 燃 料	80	1.8	91	1.9	135	2.5	441	4.0	685	4.2	1,733	8.4	403	1.7	403	1.4	977	1.0	496	2.1	403	1.4	977	1.0	1,633	1.6	536	0.2	1,591	0.9	3,021	3.1	6,456	5.2	5,282	2.9
輕 工 業 品			1,202	25.1	871	16.3	3,780	33.5	1,755	10.6	4,219	20.3	4,882	20.2	4,219	20.3	4,882	20.2	6,136	26.3	5,894	25.4	25,440	27.2	20,285	20.3	57,326	22.8	21,452	11.9	21,535	22.4	36,933	29.5	45,002	24.5
織 維 品	643	14.4	586		666		3,198		1,179		2,618		997		2,618		3,421		3,631		3,561		19,681		13,602		35,964		4,486		5,132		19,966		21,997	
非金屬礦物製品			3		1		3		9		26		34		26		34		103		26		103		26		103		4,212		3,391		2,238		3,070	
其他輕工業品			613		214		579		567		1,575		618		1,575		1,395		918		1,575		5,419		6,092		19,900		12,754		13,013		14,730		20,035	
重化學工業品	2,962	66.2	3,487	72.9	3,927	73.4	7,033	62.3	14,632	88.1	14,936	69.4	17,699	73.3	14,936	69.4	17,699	73.3	15,393	65.9	21,202	73.3	66,156	70.8	74,267	74.1	190,308	75.5	153,280	84.9	68,206	71.0	79,598	63.6	119,879	65.4
化 學 品	377		708		1,333		2,014		2,907		3,701		3,957		3,701		3,957		3,744		5,389		7,633		12,380		10,924		18,185		13,973		13,360		25,045	
金 屬 品	1,209		2,296		1,613		3,969		7,166		2,603		1,152		2,603		1,152		766		1,451		10,848		28,670		66,943		27,627		12,076		17,324		27,503	
鐵 鋼	798		1,885		1,232		3,502		6,320		2,099		827		2,099		827		412		925		8,820		25,320		60,040		15,276		4,399		7,270		13,664	
非鐵金屬			16		61		230		230				687				687											436		1,179		3,455		6,617		
金屬製品	293		395		320		237		3,979		8,093		838		8,093		838		329		477		1,952		3,118		6,642		11,915		6,498		6,599		7,222	
機 械 器	1,366		483		979		1,050		3,979		8,093		838		8,093		838		10,873		14,362		47,675		33,217		112,440		107,466		42,157		48,914		67,331	
一 般 機 械	351		144		103		258		2,258		4,200		337		4,200		337		8,248		10,335		34,240		16,630		66,435		62,487		17,770		21,866		26,340	
電 氣 機 械	996		297		492		647		415		3,167		298		3,167		298		460		3,393		6,200		7,368		18,018		27,416		12,481		18,016		25,195	
輸 送 機 械			1		367		113		1,208		172		109		172		109		89		225		5,206		7,782		23,897		14,812		9,785		7,087		13,252	
密 封 機 械	16		44		17		32		99		555		95		555		95		127		409		2,028		1,438		4,001		2,751		2,121		1,944			
其 他	781	17.5			410		27	-0.2	14	0.1	270	1.3	978	4.0	270	1.3	978	4.0	503	4.9	1,285	4.4	758	0.8	3,825	3.8	3,546	1.4	4,283	2.4	3,151	3.3	1,904	1.5	12,608	6.5

出所：日本『通商白書』各年度版。





< 第 14 表 >

去來總額

日本 平 南 北 韓 的 貿 易 去 來

日本의 輸出

日本의 輸入

(單位：單位)

年	合 計		韓 國		北 韓	
	金 額	比 率	金 額	比 率	金 額	比 率
61	156,237	94.9	148,321	94.9	7,916	5.1
62	175,978	94.7	166,644	94.7	9,334	5.3
63	201,418	92.7	186,641	92.7	14,777	7.3
64	182,023	82.7	150,508	82.7	31,515	17.3
65	252,847	87.6	221,619	87.6	31,228	12.4
66	434,566	93.6	406,858	93.6	27,708	6.4
67	535,317	93.3	499,341	93.3	35,976	6.7
68	759,333	92.8	704,283	92.8	55,050	7.2
69	957,463	94.1	901,118	94.1	56,345	5.9
70	1,104,903	94.8	1,047,145	94.8	57,758	5.2
71	1,189,074	95.0	1,130,108	95.0	58,966	5.0
72	1,537,539	91.4	1,405,785	91.4	131,754	8.6
73	3,168,902	94.6	2,996,424	94.6	172,478	5.4
74	4,584,835	92.1	4,224,097	92.1	360,738	7.9
75	3,801,191	93.5	3,555,722	93.5	245,469	6.5
76	4,908,920	96.6	4,741,237	96.6	167,683	3.4
77	6,384,716	97.0	6,193,001	97.0	191,715	3.0
78	8,884,284	96.7	8,594,075	96.7	290,209	3.3

年	合 計		韓 國		北 韓	
	金 額	比 率	金 額	比 率	金 額	比 率
61	130,332	96.6	125,876	96.6	4,456	3.4
62	142,921	96.7	138,140	96.7	4,781	3.3
63	165,008	96.8	159,661	96.8	5,347	3.2
64	120,125	90.6	108,841	90.6	11,284	9.4
65	196,809	91.6	180,304	91.6	16,505	8.4
66	340,186	98.5	335,170	98.5	5,016	1.5
67	413,329	98.5	406,989	98.5	6,370	1.5
68	623,401	96.7	602,653	96.7	20,748	3.3
69	791,350	96.9	767,191	96.9	24,159	3.1
70	841,519	97.2	818,175	97.2	23,344	2.8
71	884,594	96.7	855,687	96.7	28,907	3.3
72	1,079,236	91.3	979,733	91.3	93,443	8.7
73	1,889,275	94.7	1,789,115	94.7	100,160	5.3
74	2,907,970	91.3	2,656,056	91.3	251,914	8.7
75	2,428,353	92.6	2,247,723	92.6	180,630	7.4
76	2,920,520	96.7	2,824,454	96.7	96,066	3.3
77	4,204,699	97.0	4,079,602	97.0	125,097	3.0
78	6,185,393	97.0	6,003,046	97.0	183,347	3.0

年	合 計		韓 國		北 韓	
	金 額	比 率	金 額	比 率	金 額	比 率
61	25,905	86.6	22,445	86.6	3,460	13.4
62	33,057	86.2	28,504	86.2	4,553	13.8
63	36,410	74.1	26,980	74.1	9,430	25.9
64	61,898	67.3	41,667	67.3	20,231	32.7
65	56,038	73.7	41,315	73.7	14,723	26.3
66	94,380	76.0	71,688	76.0	22,692	24.0
67	121,988	75.7	92,382	75.7	29,606	24.3
68	135,932	74.8	101,630	74.8	34,302	25.2
69	166,113	80.6	133,927	80.6	32,186	19.4
70	263,384	86.9	228,970	86.9	34,414	13.1
71	304,480	90.1	274,421	90.1	30,059	9.9
72	464,303	91.7	425,992	91.7	38,311	8.3
73	1,279,627	94.3	1,207,309	94.3	72,318	5.7
74	1,676,865	93.5	1,568,041	93.5	108,824	6.5
75	1,372,838	95.3	1,307,999	95.3	64,839	4.7
76	1,998,400	96.4	1,916,773	96.4	71,627	3.6
77	2,180,017	96.9	2,113,399	96.9	66,618	3.1
78	2,697,891	96.0	2,591,029	96.0	106,862	4.0

出所：日本『通商白書』，各年度版

